

기본연구 2017-03

대전 생활문화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한상헌

연구책임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연구보조

• 서현경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기본연구 2017-03

대전 생활문화향유 동호회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연구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9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 삼성디자인기획 TEL 042-221-3111 FAX 042-221-511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차 례

1장. 서론	1
1. 연구 배경과 목적	3
2. 연구 대상과 방법	5
2장.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선행연구	7
1. 생활문화동호회의 개념	9
2. 생활문화동호회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16
3. 생활문화동호회 조사 및 지원 사업	19
3장.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27
1. 문화동호회 활동의 일반현황	29
2. 대전시 주요 공공 동호회 현황	37
3. 대전시 주요 민간 동호회 현황	46
4장. 대전시 생활문화동호회의 요구수준	55
1. 모임 결성 계기와 목적	57
2. 모임의 편익과 어려움	61
3. 모임의 비전과 미래상	65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1
1. 조사결과 요약	73
2. 정책 지원 방향	75
참고문헌	78
부록	79
1. 생활문화 관련 법령 및 타 지역 조례	81
2. 대전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85

표 차례

표 2-1.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대조적 특징	9
표 2-2. 생활문화와 예술학술문화의 상관관계	10
표 2-3. 생활문화-생활예술 및 유사개념 비교	11
표 2-4. 생활문화의 개념속성 구체화 및 범위 한정	12
표 2-5.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의 동호회 관련 내용	15
표 2-6.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와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특성	25
표 2-7.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26
표 3-1.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 및 동호회 성격	29
표 3-2. 대전시민의 주요 동호회 활동	30
표 3-3. 대전시민의 동호회 활동 여부 및 참여 동호회 수	31
표 3-4. 활동 동호회의 유형 - 전국	32
표 3-5. 활동 동호회의 유형 - 대전	32
표 3-6. 동호회 참여빈도(동호회 참여경험자) - 전국	33
표 3-7. 대전의 동호회 참여 빈도	33
표 3-8. 도서관-대중교통 접근성	35
표 3-9. 도서관별 동아리 활동 현황	36
표 3-10. 무용 부문 공공 동호회	37
표 3-11. 국악 부문 공공 동호회	38
표 3-12. 대중음악, 세미클래식 부문 공공 동호회	39
표 3-13. 합창, 클래식음악 부문 공공 동호회	40
표 3-14. 연극 부문 공공 동호회	41
표 3-15. 낭송/창작 부문 공공 동호회	41
표 3-16. 독서회 부문 공공 동호회	42
표 3-17. 회화 부문 공공 동호회	43
표 3-18. 서예 부문 공공 동호회	43
표 3-19. 디자인, 캘리그래피 부문 공공 동호회	44
표 3-20. 공예 부문 공공 동호회	44
표 3-21. 기타 공공 동호회	45

표 3-22. 무용 부문 민간 동호회	46
표 3-23. 연극 부문 민간 동호회	46
표 3-24. 국악 부문 민간 동호회	47
표 3-25. 음악 부문 민간 동호회	48
표 3-26. 낭송 / 문학창작 부문 민간 동호회	49
표 3-27. 독서회 부문 민간 동호회	50
표 3-28. 회화 부문 민간 동호회	52
표 3-29. 공예 부문 민간 동호회	52
표 3-30. 사진 부문 민간 동호회	53
표 3-31. 서예 부문 민간 동호회	53
표 3-32. 기타 민간 동호회	54

그림 차례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	6
그림 2-1. 생활문화의 개념	13
그림 2-2.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24
그림 5-1. 부천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정책 체계	77

DSI

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배경과 필요성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정책 지원의 방향은 기존의 문화창작자 지원 중심에서 시민문화향유 지원으로 문화정책의 범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들의 문화 활동이 단순 향유를 넘어 생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으로 이어지고, 생활문화를 매개로 동호회를 비롯한 지역의 크고 작은 생활 문화 커뮤니티의 형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문화정책의 중점방향이 과거에는 창작예술인 지원정책에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문화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에 기여하는 문화향유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가적 기조에 발맞춰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수립에서도 시민문화향유, 생활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중요한 토대이자 요소인 문화향유공동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실성 높은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계획 중인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전에서는 문화향유동호회에 대하여 기초 조사가 거의 없었다. 2018년 1월 완료 예정인 「대전 문화예술 중장기 계획」에도 대전시민의 문화향유 지원정책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와 관련해 생활문화동호회에 관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향유의 기초자료를 파악하여 문화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향유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있는 ‘생활문화 동호회’의 현황 조사를 통하여 대전시민의 생활속 문화체감 확대와 생활문화 활동 증진 및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본 현황 자료를 구비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시민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다. 사회적 경제 개념의 등장, 마을기업과의 관련성을 이론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본문에서는 대전지역 생활문화 향유 동호회에 대한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기술한다. 대전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단체 및 동호회의 명칭과 주요 활동 지역, 활동 분야와 참여회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 활동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생활문화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몇몇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의 지향성, 결속력, 문화적 파급력, 활동 내용을 분석하였다. 생활문화에 관한 참여자의 태도 및 활동방식, 개선점 및 애로사항, 지원에 관한 요구수준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생활문화향유동호회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활문화향유동호회의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체계와 전략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의 일상적 문화예술 참여를 위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킹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동호회는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생활문화동호회 연합단체나 네트워크 등)에 부합하는 대전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중 대전지역에 근거를 두고 문화향유 주체로서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모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도서관, 평생학습원,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련에서 동호회가 결성되고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임들을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공공 동호회'라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동호회가 지니고 있는 자발적 활동성의 양태와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결성된 동호회들도 일부 조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주로 NGO나 문화운동단체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동호회들을 본 연구에서는 '공공 동호회'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민간 동호회'라 칭한다. 이러한 호명은 학술적으로 엄밀한 근거를 지니지는 못하지만, 본 연구가 추상적 개념적 탐구보다는 정책수립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자료조사와 심층인터뷰로 나뉜다.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에 관하여 온라인(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조사를 실시하였다. 생활문화향유 동호회에 대한 기초 현황자료에 관하여 구별 평생학습원, 시민대학, 대학 평생교육원 등 기관과 협조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심층면접조사는 문화 향유 분야별로 가장 활발히 활동 중인 동호회 15개를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의 지향점을 파악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생활문화향유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조해야 할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동호회 4개를 연구자가 직접 수회 참여하여 관찰, 기록하였다.

분야별 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장·단기 전략과제별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일반적인 학문적 접근보다는 활용 가능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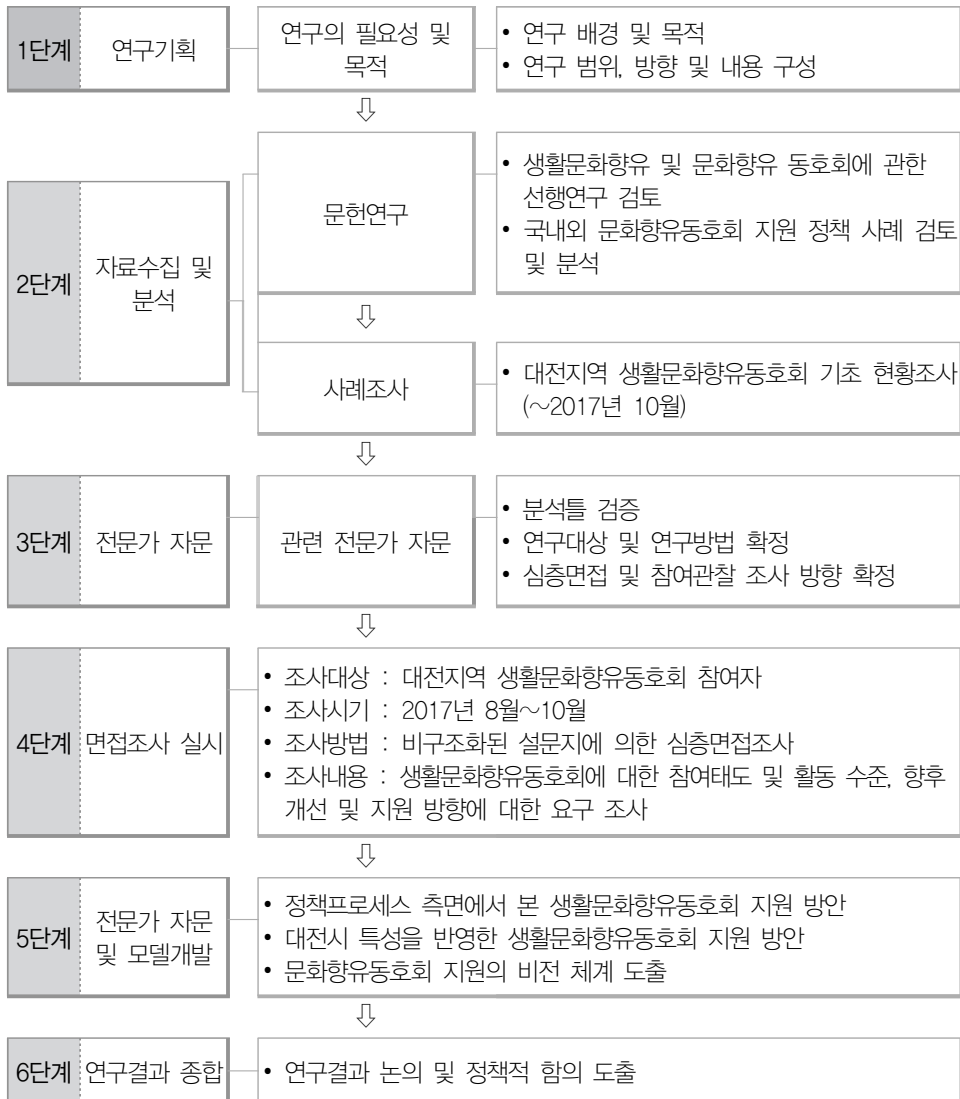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

2장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선행 연구

1. 생활문화동호회의 개념
2. 생활문화동호회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3. 생활문화동호회 조사 및 지원 사업

1. 생활문화동호회의 개념

1) '생활문화'

(1) 생활문화예술, 생활예술

최근 몇 년 사이 대두되기 시작한 '생활문화' 개념은 이전에 '생활예술'로 흔히 표현되었다. 생활예술이란 단순히 정의하면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다(강윤주 외, 2012).

'생활예술'은 그동안 문화정책의 추진과정에서도 즐겨 사용된 개념이다. 고성영 외(2013)에서는 생활예술 개념을 (1) 일상생활 속에서(2) 일반인들에 의해서 (3)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음.

표 2-1. 생활예술과 전문예술의 대조적 특징

	생활예술	전문예술
터전	일상생활 속에서(비공식예술)	구조화된 예술계 속에서
주체	일반인들에 의해서(아마추어 예술)	전문예술가와 비평가에 의해서
동기	자발적으로 향유되는 예술 활동(자발예술, 참여예술)	직업적으로 추동되는 예술 활동

출처: 정종은 외, 2013

'생활예술'은 '생활문화예술'로 개념이 확장된다. '생활문화예술'이라는 광의적 정의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향유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演藝), 국악, 사진, 건축 등의 범위 안에서의 모든 행위”라고 말한다. 민인철 외(2015)에서는 생활문화예술이 일반시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2) 생활문화

최근의 정책연구들에서는 생활예술, 생활문화예술로 혼용되던 기존의 용어 대신 ‘생활문화’로 정착되는 추세이다. 조현성 외(2014)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전문 문화예술 기술습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과 주변을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또한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한정된 시·공간을 사용해 영위해가는 생활 방식’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론적·추상적 의미로 다가와 정책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

표 2-2. 생활문화와 예술학술문화의 상관관계

생활문화(일상문화)	학술예술문화(비일상문화)
일상적인 우리들의 가치의식, 행위, 표현물, 용구, 생활의 유용성과 깊게 관련. 의식주, 경제활동	비일상적이고 특화된 가치의식, 행위, 표현물. 직접적 유용성으로부터 자립하고 자기완결적. 표현, 연구, 문화활동
생활이 있기 때문에 예술·학술이 생겨난다.	학술·예술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혁신되고 해결된다.

출처: 조현성 외, 2014

생활문화의 개념은 생활예술, 공동체문화, 아마추어예술과 일정한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지닌다. 생활문화를 정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아마추어로서 참여하는 예술 활동이나 여가생활의 충실과 향상을 지향하는 생활’라는 의미를 덧붙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2-3. 생활문화-생활예술 및 유사개념 비교

생활문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지역문화진흥법)
생활예술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유대,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예술개념들을 총칭
공동체문화		80년대 문화운동권에서 주로 사용.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였음
아 마 추 어 예 술	자발적 예술	영국에서 아마추어 예술의 대치 개념으로 등장. 자기계발, 사회적 유대, 여가와 유희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비전문예술
	비공식 예술	미국에서 주로 사용. 시민들의 정체성 증진, 집단적 유대, 공동체 구축, 문화적 전통의 고수, 경제적 가치창출에 주목
	참여 예술	미국에서 주로 사용.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강조

출처: 조현성 외, 2014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생활문화의 개념을 규정한 것으로는 정광렬(2016)과 정해홍(2017)의 정리를 참조하는 것이 유용하다. 정광렬은 생활문화의 개념을 “지역의 주민 및 문화수요자들이 문화시민으로서의 주체적인 문화적 삶을 위해 일상에서 문화기획과 과정에 자발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활동”이라는 정의하였다. 즉, 문화를 일상으로 확산하는 공급자 관점의 문화의 생활화와 주체적인 문화활동으로서 문화창조자 와 문화활동 주체자 관점의 생활문화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광의의 관점에서는 문화의 생활화도 생활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

정해홍도 크게 다르지 않은 관점을 취하는데, 그에 따르면 생활문화는 생활적 일상성, 자발적 주체성, 장르적 다양성, 문화적 인지성으로 구분된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삶의 문화를 생활적 일상성,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하며 활동하는 주체적 성격이 강한 자발적 주체성,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일상에서의 학습 및 기술까지 모두 포괄하여 나타나는 장르적 다양성, 생활문화예술을 활동하는 사람이 문화로서 인지하는 문화적 인지성으로 구분된다.

표 2-4. 생활문화의 개념속성 구체화 및 범위 한정

구분		개념과학
이론적 개념 (속성)	생활적 일상성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함께 발현되는 동시적이며 반복적인 삶의 문화
	자발적 주체성	누군가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닌 문화를 원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하며 활동하는 주체적 성격이 강한 문화
	장르적 다양성	일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서부터 일상에서의 학습 및 기술까지 모두 포괄 하면서 생활에 근접되는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여 나타나는 문화
	문화적 인지성	생활문화를 행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 문화로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본질적 속성을 유지해야만 인지되는 문화
실제적 개념 (전개 범위)	사회적 범위	지역주민이 사회생활을 영위 및 유지하는 가운데 원하게 되는 문화적 욕구로부터 발생하는 문화활동이어야 함
	시간적 범위	주민 개개인의 생애주기 안에서 동일계열의 내용범주 및 구조에 의한 활동이 반복적 또는 주기적 활동패턴을 생성하는 문화 활동이어야 함
	공간적 범위	지역 주민의 일상적 생활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는 문화 활동이어야 함

출처: 정해홍, 2017

문화는 지역적 특색에 따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는 특징을 지니므로, 생활 문화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지역적 특색이 나타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전지역의 생활문화 정책에 대해 탐구한 이성은(2017)에서도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활동”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정교하게 구성한 것으로는 조광호(2015)의 작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문화에 대한 기존의 개념규정들을 종합해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생활문화를 포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개념 정의	일반 정의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 정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
-------	-------	---

개념 특성	개념 속성	생활적 일상성 : 생활영위활동과 함께 일어나는 삶의 동시적 문화 자발적 주체성 :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지로 행하고 활동하는 문화 장르적 다양성 : 문화예술부터 생활기술까지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문화 문화적 인지성 : 문화로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문화적 인지태도의 문화		
	개념 전개 특성	사회적 전개	공간적 전개	시간적 전개
		사회생활의 영위와 함께 문화생활을 위한 활동 전개	생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지는 문화활동 전개	생애주기 내 반복적 문화 패턴을 만드는 문화활동 전개

개념 범위	장르 범위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예술 장르에 해당하는 계열의 문화활동 분야	예술에 속하지 않는 장르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동시에 자기개발, 여가, 취미 등의 목적으로 향유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분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류 및 매개와 사회공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활동 분야	생활예술 / 생활기술 / 생활교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화활동 분야
	활동 범위	창작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		
		참여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		
		교육	지역주민이 자발적 의지로 문화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		
		향수	문화적인 것으로 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활동형태		

그림 2-1. 생활문화의 개념(출처: 조광호, 2015)

2)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는 언표적 형태만으로 볼 때는 기존의 '생활문화'에 '문화공동체'가 결합된 것일 뿐이다. 여기서 '문화공동체'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공통의 언어, 관습, 미적성향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연결되고 결속된 공동체로서 한정적으로 정의된다(노재천, 2009). 그러나 '문화공동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장민희 (2014)는 '생활문화

예술동호회'라 표현하면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교류를 위해 타인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자생, 자발적 형성된 문화공동체로 정의한다. 김유진(2017)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하여 가치를 공유하고 목표를 함께 하며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기 위한 것이 문화예술공동체라 말하며, 강운주·전수환(2015)에서는 생활예술공동체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예술적 활동을 위한 협력망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요약하면 '생활문화공동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생활문화공동체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식을 확장하고 그 특징과 가능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안영노 외(2009)에 따르면 생활문화공동체는 파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문화예술활동과 거주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공동체적 연대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생활문화공동체는 ①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형성의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는 점에서 자연발생적 공동체와 구분되고, ② 문화예술활동이 생활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이자, 이들 공동체의 중요한 활동이 되며, ③ 거주지 중심의 공동체, 정주공동체적 형태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손경년(2014)에서는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틀을 제시하면서 문화창작·문화복지·문화향유의 공간들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문화공동체는 '문화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생활밀착형 공간'과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3)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법적 규정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활문화의 주요한 속성으로 ‘자발성’과 ‘일상성’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생활문화공동체’는 ‘자발성’과 ‘일상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동호회’개념을 도입해 ‘생활문화동호회’로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진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7조에는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공간을 제공하거나, 동호회에 공간을 제공한 민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문화동호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표 2-5. 지역문화진흥법상 지역의 동호회 관련 내용

<p>〈지역문화진흥법〉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p> <p>제7조(생활문화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2. 생활문화동호회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생활예술, 생활문화와 관련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의 개념 정의와 의미, 생활예술동호회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 분석과 점검, 동호회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1) 생활예술, 생활문화의 개념분석, 기능과 관련한 기초연구

생활예술과 생활문화의 개념을 분석한 김기봉(2016)의 연구는 생활문화 개념이 정책용어와 개념으로 정의되고 제도화 된 배경을 설명하고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정립,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지침과 생활예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정책에서 생활예술은 ‘엘리트 중심 또는 전문가 중심의 예술진흥 정책이 아마추어와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향수자 중심의 창작활동 행위가 전면적으로 등장함으로 주체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에 반해 생활문화는 ‘주체와 대상보다는 공간과 공동체 중심의 정책’이므로 ‘생활문화공간을 문화플랫폼으로 하고, 마을과 동네를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활동가들과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이므로 공간 중심의 지원 정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생활공동체의 복원 또는 회복과 관련된 사업’이다.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심보선 외(2010)가 언급한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이 있으며 이원재는 이를 재해석하여 자율적 주체, 사회적 관계, 창의적 예술 등을 통해 현대인을 둘러싼 일상과 환경에 적극 개입하고 실천하는 미학적 행위로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능동적인 주체,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 정체성, 감성으로 구성원들 관계의 회복과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다.(김기봉, 2016) 더하여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조직’을 사례로 생활예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한 강윤주·지혜원(2016)의 연구가 있었다.

2) 생활예술 관련 정책 현황 파악과 효용 점검 연구

강운주 외(2012)은 생활예술 정책과 관련된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국내외 해외의 생활예술 관련 정책을 파악했으며 그를 통해 향후 생활예술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생활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정종은 외(2013)의 경우 생활예술과 관련한 성남시에서 시행되는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지표를 마련했다. 더하여 문헌분석과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조현성 외(2014)은 네트워크를 구축한 기존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성은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과 지원의 방향을 제시했다. 심보선·강운주(2010)는 성남시의 문화클럽을 중심으로 클럽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하여 유형이 나타나고 유지되는 경험적 기제와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클럽의 ‘형성 계기’와 ‘활동 거점’이 사회자본, 문화자본과 상관관계를 맺는 변수임을 확인한 연구도 참고할 만하다.

3) 동호회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생활예술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는 생활예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각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각각의 기반 조건들을 조사하고 사례를 파악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해 왔다. 각 시의 실태조사는 활성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기초조사의 의미를 가진다. 익산시는 자발성을 갖고 참여하는 기존동호회의 특성을 훼손하지 않고 동호회 자체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3개월 이상 활동 중인 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동호회 실태를 파악했고 광주시는 광주시의 문화기반현황과 함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 내 권역별 공동체 사례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 현황과 지원 현황 조사했으며 생활예술공동체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 지역적 특색을 잘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사로는 안영노 외(2009)의 연구가 있다. 생활문화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활문화공동체의 생성 및 활성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광주북구와 여주군을 선정하여 현황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생활문화 공동체의 유형을 분류하고 활동의 조건, 공동체성, 장애요인 등을 세세하게 파악했다. 또한 윤소영 외(2010)은 문화예술 분야 동호회 활동의 참여 실태와 활동 내용과 관련 정책의 대상 및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설에 기반한 문화예술 동호회의 운영현황을 파악했고 이를 통해 활동 참여 실태 및 활동내용과 활동의 장애요인을 규명했다.

서울문화재단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서울시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문화동호회 참여 실태 파악, 문화동호회 참여의 제약사항 및 활동 시 필요한 지원기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 문화동호회 지월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문화재단 회원 및 문화정책 패널에게 문화동호회 활동관련 설문지 조사이다.

각각의 연구는 집단의 특성과 유형에 따른 차별된 지원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호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많았다.

3. 생활문화동호회 조사 및 지원 사업

1) 전국 단위 지원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09년과 2010년 시행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를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 생활권 내 임대아파트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 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하였다. 사업대상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단체나 기관을 선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예술동네’수기를 공모하였다.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8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개인 및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유도하고 ‘관람’에서 ‘창작’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대아파트,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예술작품의 주인공이 되며 이웃과 함께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적 소외지역은 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사업대상자와 해당지역에서 활동가능한 문화예술단체를 매칭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민의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참여 기반 마련. 예술가 중심의 문화향유에서 국민 주도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국민의 문화융성 체감 확산 및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참여기반 마련. 예술가 중심의 문화향유에서 국민 주도의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 지원. 권역별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및 생활문화정책 홍보등이 펼쳐졌으며,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3개 단위사업인 생활밀착형 문화프로그램과 권역별 생활문화제, 전국생활문화제의 추진결과, 각각의 단위사업이 동호인의 실력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이 생활문

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문화원연합회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공동체 문화 회복 및 지역의 변화 유도, 지역주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문화적 격차 해소, 지역 주민의 자율적 문화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를 매개로 한 생활문화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타 지역으로 자발적 보급·확산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간담회 및 수요조사, 운영전략 개발을 위한 사전 활동비 지원,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기반) 활동 지원, 문화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 등이며, 대상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활동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자생적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 3년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기반 조성하려 하였다.

2) 지역 단위 지원 사업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 구상과 실천의 단위들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마포구 내 교육 프로그램과 동호회 현황과악 및 동호회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연구조사 결과 왕성하게 활동하는 마포 문화예술 커뮤니티와 각 커뮤니티들의 인큐베이팅 할을 하는 단체, 문화공간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고 책자를 발간하여 커뮤니티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또한 공연예술 장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에 대해 <찾아가는 MAC 콘서트>를 하거나 축제와 연계해 동아리들의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마포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과 '서울 오페라 앙상블'이 함께 주민아마추어 동아리를 육성하고 멘토링, 연습공간, 악기 지원 등을 진행하였다.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부터 주최하고 있는 <지역사회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공간비, 외부인사 초청비, 홍보비로 한정하여 2백만원씩 정액 지원

한다. 2009년도 2억 3천만원, 2010년도 2억 8천만원으로 예산이 증가 추세이며, 선정된 동아리 집단의 특성은 순수 아마추어 집단의 동호회 보다는 숙련자 집단의 동아리 성격이 강하다.

춘천문화재단이 2017년 실시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중 생활예술지원>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강화 일반일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춘천 문화도시를 구현한다는 웅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순수 아마추어 단체 및 학교 동아리 예술 활동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며, 지원 내용은 사업수행 소요경비 중 직접비에 한하여 일부지원하고, 차등 지원한다. 문학, 시각, 예술일반, 예술교육 등 공연을 제외한 활동을 지원한다.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사업>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클럽(동호회)들이 주체가 되어 클럽들의 자생적 활동 강화와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성남문화재단의 문화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시민’을 골자로 하는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핵심이며,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 동아리들을 시민활동의 기초이자 출발점으로 삼는다. 우리동네 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성남인의 창작활동 진흥사업, 문화통화 시스템 기반조성사업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풍부한 문화예술의 토대를 생성하여 시민 누구나 사랑방문화클럽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의 <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 및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지원. 간접 지원을 통해 시설, 전문인력 연계 등을 지원.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성문화재단의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되었

다. 화성시에서 활동하고있는 기존 문화예술 동아리를 조사하고 신규 동아리를 발굴하여 육성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동아리 연합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동아리 및 동아리연합체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간접지원 형식으로 사회공헌을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려 했다는 점에서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선도적인 사업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신규 동아리들을 모집해 기관 등록을 유도하고, 대상은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정기적인 만남, 공연, 전시 등 자발적 예술활동을하는 동아리나 주부, 직장인, 학생 등 3인 이상의 아마추어 회원으로 구성된 화성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로 한정된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동안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추진중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시민들의 창작의욕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을 설정하였다. 대전광역시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 및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3) 그 밖의 연례 지원 사업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업으로, 문화기반시설 연계 문화예술 교육지원 (2009년), 문화의집 창의학교 지원, 시민문화예술 교육지원 - 문화로 행복한 우리동네 (201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시범사업의 동아리 지원사업, ‘즐거운 예술, 신나는 일터’ 프로젝트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재단 주관 사업으로는, 부산문화재단의 <부산 시민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전수조사 (2015)>,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지원>, 부천문화재단의 <문화공동체사업>, <예술지원사업>, <문화다양성사업>,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수원문화재단의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서울문화재단의 <좋아서-예술동아리>, 인천문화재단의 <문화공동체 활

성화 사업),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플랫폼 사업〉,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 문화나눔 활동 지원사업〉, 충남문화재단의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이 있다. 제주문화재단의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16 전남형 생활문화지원사업 ‘형형색색’〉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문화예술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10월과 2017년 2월 개최되었다.

(3) 시민참여형 도서관 : 도서관 자원봉사 활용과 커뮤니티 활성화로 동호회 활동 지원

① 서울 광진구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에 ‘도서관 친구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 친구들’은 지역 주민들이 광진정보도서관의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서관 재정 및 프로그램 활동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정책 제안,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활동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화 프로그램과 재능기부 프로그램, 독서 모임, 동화 구연, 영어 스토리텔링, 저자 특강 행사 등 연간 130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서와 재능기부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의를 진행한다.

②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립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활발하다.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에게 작은도서관 소개와 함께 도서관 이용 방법 및 예절을 소개해주는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도서관 Day’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할머니와 아이들이 만나는 프로그램, ‘책 읽는 할머니의 스토리텔링’을 운영하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는 독서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자원활동가와 도서관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학교’를 운영하는데,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역량강화와 다양한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화구연, 발문법 등을 교육한다.

4) 공간적 지원 -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1) 생활문화센터 개념

지난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높아지는 국민들의 문화 참여 욕구 해소 및 국민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중이다.

생활문화센터는 삶의 양식으로서 생활문화 개념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의 거점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점차 중시되고 있다.



그림 2-2. 생활문화센터의 개념

(2) 생활문화센터의 유형과 현황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회합·연습·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아래 표와 같이 생활권형과 거점형으로 구분된다.

생활권형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거점형은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생활문화 멀티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된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이면서, 전국 6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2016년 현재).

현재 대전에는 생활문화센터가 둔산동에 1개가 있고, 한밭도서관 내1개 더 추가될 예정이지만, 타 도시에 비해 미진한 상태이다.

표 2-6.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와 거점형 생활문화센터의 특성

기본공간	생활권형	거점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동호회 등)을 위한 공간지원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생활문화동호회 형성 지원 · 지역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 상호교류를 위한 주민공동체공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형 기능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허브기능 및 정보제공, 컨설팅 지원 등 멀티 플랫폼 역할 수행 · 생활권 시설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생활문화 활동, 창작 및 발표 등의 공간 지원
위치	지역주민의 생활권 단위인 읍·면·동 단위로 조성	시·군·구 단위로 조성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200㎡ 내외 · 기본공간 + 필요한 권장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00㎡ 이상 · 기본공간(다목적홀, 공연장 포함) + 필요한 권장공간
의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 주민자율공간 (50㎡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 공동체 사용함 (25㎡ 이상) · 화장실 / · 사무실 / ·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체공간 (50㎡ 이상) · 주민자율공간 (50㎡ 이상, 방음실 최소 1개 이상) · 공동체 사물함 (25㎡ 이상) · 화장실 / · 사무실 / · 창고 · 다목적홀 (150㎡ 이상) · 공연장 (300㎡ 이상)
권장공간 (특성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놀이방 · 공동체 부엌 · 스튜디오 (녹음실, 영상편집실) · 공동체공방 · 야외공연장 및 활동공간 	

표 2-7. 전국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구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4년	3	2	1	2	1	-	6	2	1	3	5	4	4	1	-	35
2015년	2	3	2	1	-	2	3	3	2	2	4	3	-	3	2	32
거점형	3	1	1	2	-	1	4	3	1	-	3	1	2	-	-	22
준거점형	2	2	1	-	-	-	1	-	1	2	3	-	1	-	-	13
생활권형	-	2	1	1	1	1	4	2	1	3	3	6	1	4	2	32
소계	5	5	3	3	1	2	9	5	3	5	9	7	4	4	2	67

*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5. 5. 11.

3장 생활문화동호회 현황

1. 문화동호회 활동의 일반현황
2. 대전시 주요 공공 동호회 현황
3. 대전시 주요 민간 동호회 현황

1. 문화동호회 활동의 일반현황

1) 대전시민의 동호회 참여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대전시민이 문화예술 동호회에 참여한 경험은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래 표에서 보이듯 전국 평균에 대비해볼 때 대체로 많이 낮은 수준이며, 특히 보편적 문화향유형태라 할 수 있는 영화 관람과 미술 분야가 크게 낮다.

표 3-1.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 경험(복수) 및 동호회 성격

	참여 경험	
	전국	대전
문학행사	1.2	0.7
역사, 철학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0.6	0.2
미술	1.6	0.2
서양음악	0.8	0.6
전통예술	0.6	-
연극	0.3	-
뮤지컬	0.1	-
무용	0.3	0.1
영화	0.6	0.1
대중음악, 연예	0.4	0.2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단위 : %)

체육과 관광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 활동으로 대전시민의 동호회 참여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참여와 관람의 비중이 매우 낮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저조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문화예술참여와 관람이 활발하다. 지역별로는 서구와 유성구가 직접참여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으며, 동구와 대덕구는 직접참여활동과 관람 모두 매우 침체되어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

수록 문화예술참여와 관람의 빈도가 높아 당연한 결과인 듯 보이지만,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오히려 문화예술 활동이 거의 없고, 스포츠참여로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표 3-2. 대전시민의 주요 동호회 활동

		사회·기타	취미오락	스포츠참여	휴식	관광	문화예술참여	스포츠관람	문화예술관람
전체		32.0	27.8	18.4	9.4	5.6	3.7	1.9	1.1
성별	남성	28.3	23.3	29.9	6.3	6.9	2.0	2.6	0.6
	여성	35.9	32.5	6.3	12.7	4.3	5.4	1.2	1.6
연령	15-19세	19.9	33.1	28.9	3.3	1.0	8.5	1.2	4.2
	20-29세	21.9	35.2	25.8	6.5	1.2	5.2	2.0	2.2
	30-39세	22.7	31.3	24.6	11.0	3.4	3.8	1.7	1.4
	40-49세	32.7	24.8	19.7	11.6	4.9	3.8	2.2	0.2
	50-59세	38.1	25.8	14.2	8.9	7.9	2.5	2.1	0.5
	60세 이상	39.8	24.5	10.8	9.7	9.1	3.2	1.7	1.1
구별	동구	34.9	28.2	14.4	11.8	7.6	1.2	1.8	0.2
	중구	34.2	32.4	17.1	6.2	4.1	3.2	1.0	1.7
	서구	29.5	27.3	21.6	5.7	6.6	5.1	3.2	1.0
	유성구	30.9	27.1	17.8	13.0	4.6	4.1	1.0	1.6
	대덕구	34.4	23.3	16.8	15.2	6.1	2.4	1.8	0.0
소득별	100만원미만	40.7	30.8	8.4	10.4	4.4	2.2	1.8	1.4
	100-200만원미만	42.7	20.1	13.2	14.0	4.3	1.9	1.6	2.1
	200-300만원미만	26.5	28.6	19.7	9.8	7.9	5.0	1.5	1.0
	300-400만원미만	32.9	28.6	18.5	9.6	4.5	4.0	1.6	0.2
	400-500만원미만	34.8	27.4	17.9	10.0	5.2	1.9	2.0	0.9
	500-600만원미만	25.2	29.7	19.7	7.4	6.6	6.2	3.3	1.7
	600-700만원미만	31.2	28.3	21.7	4.7	7.1	4.2	1.3	1.6
	700만원이상	15.2	34.6	41.3	1.8	3.9	1.6	0.0	1.6

출처 : 2016 대전의 사회지표 (단위 : %)

표 3-3. 대전시민의 동호회 활동 여부 및 참여 동호회 수

구분		없음	있음	1개	2개	3개	4개이상	평균
전 체		67.0	33.0	69.8	24.1	4.3	1.8	1.39
성 별	남성	64.7	35.3	67.8	24.0	5.7	2.6	1.43
	여성	69.1	30.9	71.9	24.2	2.9	1.0	1.33
연 령 별	15-19세	81.3	18.7	78.6	18.9	2.5	0.0	1.24
	20-29세	68.9	31.1	73.2	24.3	1.2	1.3	1.31
	30-39세	63.7	36.3	73.7	22.8	2.5	1.0	1.31
	40-49세	57.6	42.4	63.7	29.3	4.9	2.1	1.46
	50-59세	60.8	39.2	66.8	24.5	6.3	2.4	1.45
	60세 이상	75.3	24.7	72.9	19.8	5.3	2.0	1.37
구 별	동구	80.3	19.7	77.1	18.2	2.4	2.3	1.30
	중구	60.2	39.8	57.2	31.1	8.5	3.2	1.58
	서구	67.8	32.2	74.3	21.5	2.8	1.3	1.31
	유성구	61.1	38.9	71.6	24.2	2.9	1.3	1.34
	대덕구	65.8	34.2	69.5	23.6	5.6	1.3	1.39

출처 : 2016 대전의 사회지표 (단위 : %, 개)

대전시민은 개인별로 3개 이상의 동호회 가입활동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며, 1개 이상의 동호회 활동을 하는 비율보다 동호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구, 연령별로는 10대 청소년들이 동호회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대책이 필요하다.

활동 동호회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전은 전국평균에 비해 학교에서의 동호회 활동비율이 낮은 반면 직장에서의 동호회활동비율이 높다.

대전시민 개인별 동호회 참여 빈도(주기)는 월1회가 가장 많으며, 월2~3회 참여하는 비율도 높다.

표 3-4. 활동 동호회의 유형(복수) - 전국

	지역사회	직장	학교	온라인	종교단체	기타
문학행사	44.2	6.1	30.1	5.9	6.4	9.3
역사, 철학 강의 및 탐방	45.0	2.5	9.1	10.7	11.1	21.5
미술	38.2	6.2	20.1	10.5	7.9	17.1
서양음악	18.5	2.3	10.7	18.0	31.5	19.0
전통예술	59.1	7.0	6.4	1.6	9.7	16.2
연극	20.6	-	40.1	7.1	25.5	6.8
뮤지컬	-	9.7	51.9	18.0	5.5	14.8
무용	37.8	-	10.6	14.8	21.6	15.2
영화	29.3	6.3	3.5	17.3	19.2	24.5
대중음악, 연예	20.3	8.2	13.6	19.7	23.0	15.2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단위 : %)

표 3-5. 활동 동호회의 유형 - 대전

구분		지역사회	직장	학교	온라인	종교단체	기타
전 체		54.3	16.6	16.1	6.6	6.3	0.1
성 별	남성	51.1	23.5	14.5	6.8	3.9	0.1
	여성	57.6	9.3	17.7	6.5	8.9	0.0
연 령 별	15-19세	7.9	3.2	85.9	3.0	0.0	0.0
	20-29세	20.2	16.4	51.2	10.0	2.2	0.0
	30-39세	39.8	30.4	10.7	13.1	5.9	0.0
	40-49세	55.6	20.7	10.8	7.5	5.3	0.0
	50-59세	68.0	15.4	5.4	4.4	6.7	0.0
	60세 이상	78.3	5.2	3.3	1.6	11.1	0.4
구 별	동구	53.9	23.1	13.1	7.3	2.6	0.0
	중구	61.7	11.3	15.3	6.2	5.5	0.0
	서구	54.5	16.7	15.6	6.5	6.7	0.0
	유성구	46.8	16.9	20.3	8.2	7.8	0.0
	대덕구	55.6	18.8	13.7	4.5	6.9	0.5

출처 : 2016 대전의 사회지표 (단위 : %)

표 3-6. 동호회 참여빈도(동호회 참여경험자) - 전국

	주 2회 이상	주1회	격주 1회	월1회	격월	분기	년2회	년2회 미만
문학행사	5.5	21.1	23.4	32.8	5.8	4.7	4.3	2.5
역사, 철학 강의 및 탐방	12.8	12.2	28.0	26.1	9.8	9.1	2.0	-
미술	1.9	21.5	15.7	33.0	11.4	9.6	5.1	1.9
서양음악	5.8	30.0	16.9	16.1	14.7	2.8	4.8	9.0
전통예술	15.9	38.2	6.6	19.8	12.6	1.8	3.9	1.3
연극	15.9	18.0	23.0	16.3	6.2	4.7	7.6	8.4
뮤지컬	26.1	8.3	9.7	3.4	12.7	6.6	11.5	19.7
무용	15.9	22.2	8.3	1.1	26.6	7.7	11.4	6.7
영화	1.4	17.2	34.6	15.7	16.0	5.0	9.6	0.5
대중음악, 연예	7.6	23.0	8.8	18.9	5.9	11.9	13.5	10.4

출처 : 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단위 : %)

표 3-7. 대전의 동호회 참여 빈도

		매일	주 1~6회	월 2~3회	월 1회	월1회 미만
		0.4	10.8	28.2	52.6	8.0
성 별	남성	0.5	11.0	32.0	49.6	6.9
	여성	0.3	10.6	24.3	55.7	9.1
연 령 별	15-19세	0.0	28.1	35.2	33.9	2.8
	20-29세	0.0	18.1	35.7	43.2	2.9
	30-39세	0.4	9.5	31.7	49.4	9.2
	40-49세	0.3	10.0	29.9	51.4	8.5
	50-59세	0.4	8.5	23.2	61.5	6.4
	60세 이상	0.9	7.7	23.9	54.7	12.8
구 별	동구	1.1	6.1	26.4	61.1	5.3
	중구	0.5	12.1	20.7	58.0	8.7
	서구	0.5	12.6	27.0	49.7	10.2
	유성구	0.0	11.7	33.6	49.3	5.4
	대덕구	0.3	6.4	34.6	51.1	7.6

출처 : 2016 대전의 사회지표 (단위 : %)

2) 동호회 활동의 주요 근거지인 공공도서관 여건

(1) 공공도서관의 지역별 분포와 접근성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수험 공부를 하는 곳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정보이용과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정보센터와 문화생산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연구·휴식'이 함께 가능한 복합적 문화 공간이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대전지역의 문화예술동호회들 중 특히 독서회나 책을 주제로 한 모임들은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공공도서관의 여건은 문화예술동호회와 관련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 행정구역상 동구에 총 8개관의 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5개관이 작은 도서관이다. 대덕구에는 총 3개관이 있고, 서구에는 어린이 특성화 도서관 서구 어린이도서관 포함, 총 4개관이 있다. 유성구에는 작은도서관 2개관을 포함하여 총 6개관이 있다. 중구의 경우, 대전시 전체를 관장하는 중앙도서관 성격의 한밭도서관과 시교육청 소속으로 학생학습에 특화된 대전학생교육문화원과 산성도서관을 제외하면 공공도서관이 1개관도 없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인지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주민이 최대한 편리한 시간대에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표는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을 통한 도서관 접근성을 나타낸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도서관은 3개관에 불과하고, 도보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도서관이 총 9개관이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도서관이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지만, 신탄진도서관의 경우 대전시 도서관 중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가 심한 언덕길을 올라가야 해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진다.

표 3-8. 도서관-대중교통 접근성(출처: 한상현, 2017)

도서관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
용운도서관	용운국제수영장 221m(3분)	판암역 1.5km(24분)
가오도서관	동구청 185m(3분)	판암역 1.1km(17분)
가양도서관	가양도서관 297m(4분)	대동역 2.6km(41분)
성남도서관	흥도육교 462m(7분)	대전역 1.6km(25분)
판암도서관	판암역 117m(2분)	판암역 289m(5분)
흥도도서관	한남로삼거리 328m(5분)	대전역 3.4km(53분)
자양도서관	자양동주민센터 144m(2분)	대동역 1.1km(16분)
무지개도서관	판암주공4단지 222m(3분)	판암역 992m(15분)
안산도서관	안산도서관 147m(2분)	도보 1시간 이내 X
신탄진도서관	석봉초등학교 566m(8분)	도보 1시간 이내 X
송촌도서관	송촌119안전센터 471m(7분)	도보 1시간 이내 X
갈마도서관	갈마도서관 131m(2분)	탄방역 3.2km(51분)
가수원도서관	가수원도서관 153m(2분)	도보 1시간 이내 X
둔산도서관	꿈나무아파트 160m(2분)	정부청사역 1.4km(23분)
서구어린이도서관	정림초등학교 305m(5분)	도보 1시간 이내 X
유성도서관	엑스포과학공원 419m(6분)	정부청사역 2.9km(47분)
구죽도서관	그린아파트 369m(6분)	도보 1시간 이내 X
진잠도서관	제이파크아파트 210m(3분)	도보 1시간 이내 X
노은도서관	노은도서관 297m(4분)	지족역 501m(9분)
구암도서관	유성생명과학고 243m(4분)	구암역 1.1km(17분)
관평도서관	관평중학교 103m(2분)	도보 1시간 이내 X
산성도서관	산성도서관 207m(3분)	도보 1시간 이내 X
학생교육문화원	충남여자중고등학교 226m(3분)	오룡역 647m(10분)
한밭도서관	한밭도서관 232m(3분)	서대전네거리역 2.1km(32분)

2) 도서관 동아리 활동 현황

도서관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중요한 자원이다. 대전시 공공도서관 중 모든 분야의 동아리 모임이 활발한 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이다.

한밭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동아리 모임 개수와 회원 수가 가장 높지만, 타 도서관에 비해 월등한 규모를 감안하면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단, 한밭도서관의 학습동아리는 138개 모임에 1,200여 명이 활동하여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한밭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 중 가양도서관, 유성도서관, 구즉도서관에 동아리 회원 수가 가장 많다(120명)

동아리 모임이 가장 활발한 지자체는 유성구이며, 한밭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도서관 중 유성구의 도서관 대부분이 동아리 모임과 회원 수가 가장 높다. 동아리 모임이 전무한 도서관도 5개관(판암도서관, 흥도도서관, 자양도서관, 구암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있으며, 모든 분야의 동아리 모임 활동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중구(한밭도서관 제외)와 동구이다.

대전시 도서관 동아리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독서 동아리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독서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활발한 지자체는 유성구이다. 독서 동아리 모임이 1개도 없는 곳은 판암도서관, 흥도도서관, 자양도서관, 구암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이다.

표 3-9. 도서관별 동아리 활동 현황(출처: 한상헌, 2017)

도서관명	독서동아리 개수	독서동아리 회원 수	도서관명	독서동아리 개수	독서동아리 회원 수
용운도서관	2	30	갈마도서관	5	94
가오도서관	3	36	가수원도서관	1	15
가양도서관	8	120	둔산도서관	1	11
성남도서관	2	24	서구어린이도서관	1	20
판암도서관	0	0	유성도서관	9	120
흥도도서관	0	0	구즉도서관	9	120
자양도서관	0	0	진잠도서관	7	102
무지개도서관	2	19	노은도서관	7	105
안산도서관	3	18	구암도서관	0	0
신탄진도서관	3	33	관평도서관	6	92
송촌도서관	2	24	산성도서관	4	49
한밭도서관	6	96	학생교육문화원	0	0

2. 대전시 주요 공공 동호회 현황

(1) 공연예술 분야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원 등에서 시행하는 동아리 지원 및 파악사업에 상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한 동호회를 공공 동호회로 분류하였다. 공연예술 분야의 공공 분야는 국악과 세미클래식 분야의 동호회가 다수 파악되었다.

무용 부문은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등 레저를 겸한 동호회가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교댄스 동호회도 인기를 얻고 있다.

표 3-10. 무용 부문 공공 동호회(20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강강술래동글	대덕구 평생학습원	2008	15	주1회	
댄스 스포츠	진잠동		15		
댄스스포츠	공통		29		
댄스스포츠	노은1동	2002	45		
댄스스포츠	신성동		20		
댄스스포츠	전민센터	2017	18		
라인댄스	노은1동	2012	45		
라인댄스	노은2동		35		
라인댄스 동아리	온천2동		32		
바인스텝(라인댄스)	구암센터	2014	11		
발리댄스	공통		18		
발리퀵	공통	2011	10		
셀위댄스	구암센터	2014	10		
예누림 무용단	전민센터	2013	21		
우리춤체조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07	14	주1회	서구 평생학습원
웰빙사교댄스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2011	29	주1회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장수한춤	신탄진 문화의 집	2010	9	월2회	
전민댄스스포츠	전민센터	2016	18		
춤마중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6	20	월4회	서구평생학습원

표 3-11. 국악 부문 공공 동호회(36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아영프	유성구 평생학습원		5		
갑천풍물단	서구평생학습동아리	1995	10	월2회	탄방동 음악세상
갑천풍물단			50		서구문화원 아트홀
경기민요동호회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7	8	주1회	서구 평생학습원
고운소리	신탄진동주민학습	2010	13	월4회	
가야금	노은2동		13		
가야소리병창단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2	12	월4회	서구 평생학습원
난타	노은1동	2014	25		
대덕 한뎨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8		
대전은평풍물단	서구문화원		11		서구문화원 아트홀
덤바위풍물단	덕암동주민학습	2017	10		
미씨난타	대전시민문화센터	2017	11		
민요&가락장구 동아리			25		
민요사랑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2	7		대덕구
법1동 범천 풍물단	법1동주민학습	1996	7	주2회	
법2동 풍물단	법2동주민학습	2006	20	월8회	
비래 풍물단	비래동주민학습	2001	15	월8회	
비래동난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4	10		대덕구
새여울 예술단	오정동주민학습		9		
새여울예술단	신탄진동주민학습	2012	20		
신명나는 풍물단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2	18		오정동주민학습
열타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1	8	월4회	탄방동 음악세상
우리가락 얼쑤	덕암동주민학습	2017	8		
이랑금 맑은소리	구암센터	2013	29		구암센터 다목적실
이편한난타	동구 평생학습과	2016	12	주1회	남대전10편한세상APT 커뮤니티센터
중리민속풍물단	중리동주민학습	2000	10	월2회	
진달래	신탄진 문화의 집	2013	11		
천동소리풍물단	신탄진동주민학습	2010	15	월8회	
타루	대전시민대학	2017	7		
판암1동 난타반	판암1동 주민센터	2012	18	주1회	판암1동주민센터
해금(해련)	구암센터	2015	9		
홍도동 마당놀이 연극반	홍도동 주민센터	2008	16	주1회	홍도동주민자치센터
회덕풍물단	회덕동주민학습	2012	14		
효동 퍼포먼스 난타	효동주민센터	2012	14	주1회	효동 주민센터
흥룡풍물단	가양2동주민센터	2005	15	주2회	가양2동 내흥룡경로당
흥룡풍물단난타반		2014	22	주2회	가양2동 주민자치센터

* '주민학습' : '주민학습문화센터' 를 줄임

표 3-12. 대중음악, 세미클래식 부문 공공 동호회(39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YOUni 통기타	회덕동주민학습	2013	10		
그린나래 오카리나 앙상블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0	6	주 2회	
기타	노은1동		25		
기타사랑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2	18	주1회	대덕구
다솜 오카리나회	전민센터		7		
대덕 로망스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0	12	월 4회	
대전한울림색소폰	공동	2012	0		
라온팬플룻앙상블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6	13	월 4회	
레인보우색소폰앙상블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5	22		
맑은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신탄진동주민학습	2013	14	월 1회	
멋진소리색소폰	전민센터	2011	20		
목요 우쿨렐레	구암센터	2014	10		
봉고세로	구암센터	2017	6		
색소폰 연주 동아리	온천2동		11		
선오카리나	전민센터	2011	14		
색소폰	노은2동		15		
소리사랑 오카리나	대전시민대학	2017	6		
스트링하모니	구암센터	2016	5		
시대공감 색소폰 동아리	대전시민대학	2017	6	주1회	
실버뮤직스타밴드	중구문화원	2013	40		
아코디언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6	6		
알로아 우쿨렐레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7		
오카리나	구즉동		20		
오카리나	노은1동		30	주2회	주민센터
우쿨렐레	구암센터	2014	11		
우쿨사랑	구암센터	2015	8		
청오카리나소리여행앙상블	서구등록동아리	2009	17		
청춘우쿨렐레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7	8	주1회	서구 평생학습원
코쿠아멜레(우쿨렐레)	구암센터	2012	10		
탐사운드	대전시민대학	2017	13	주1회	
통키통키기타	전민센터	2012	21		
티제이색소폰앙상블	전민센터	2013	14		
팬트라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09	20	주1회	서구
하모니기타	전체	2014	12	매 월	동구 평생학습과
하모니라이크	구암센터	2013	14	주1회	구암평생학습센터
한울타리 색소폰봉사동우회	자양동 주민센터	2008	13	주 3회	자양동 연습실
행복나눔우쿨렐레	동구 평생학습과	2015	7	주 1회	동구평생학습원
호연지기	대전시민대학	2017	8	주1회	
힐링 우쿨렐레	법2동주민학습	2015	11		

* '주민학습' :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줄임

국악 분야는 풍물단이 주를 이뤘으나, 해금과 가야금 등 기악 중심으로 다양화 되는 추세이다.

음악 분야는 우쿠렐레와 오카리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색소폰, 기타, 하모니카 등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합창 동호회는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공공 부문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3. 합창, 클래식음악 부문 공공 동호회(16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고은빛여성합창단	중구문화원				
기타합창단예울림	구암센터	2015	11		
노을합창단	온천1동		45		
늘푸른합창단	전민센터	2015	15	주1회	전민센터
베아트리스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6		
사랑소리	대덕구평생학습센터	2013	11		회덕동주민학습
산울림(클래식기타)	구암센터	2017	6		
소리사랑연희단	회덕동주민학습	2017	6		
아이리스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6		
음악 프리에	구암센터	2016	9		
작은나무오소리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6	10	월4회	내동작은나무도서관
첼로 앙상블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6	8	월4회	서구평생학습원
첼로사랑	구암센터	2015	7		구암센터
클라리넷앙상블	구암센터	2016	11		
클래식기타	구암센터	2014	11		
플룻사랑	구암센터	2017	12		

* '주민학습' :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줄임

연극 분야는 동화 구연이나 인형극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봉사의 개념이 갖든 동아리들이 많았다. 안산도서관의 돌을뺀은 만55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눈길을 끈다.

표 3-14. 연극 부문 공공 동호회(12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고운소리 이야기꾼*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5	10	-	월평종합사회복지관
꾸미니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6	12	월4회	꿈터마을 도서관
돋을별**	안산도서관			주1회	교양교실
동화구연동아리	전민센터	2017	13		
동화나라손인형극	전민센터	2017	5		
동화나라인형극	전민센터	2016	5		
민들레 손인형극	전민센터	2016	13	월1회	전민센터
반달회	안산도서관			월1회	동아리방
새끼줄 동화방	가양도서관			주1회	가양도서관
실버동화연극동아리	동구 평생학습과	2002	17	주2회	동구청 동아리실
인생2막 연극	동구 평생학습과	2013	8	주1회	동구평생학습원
해달별 인형연극회	가오도서관			주1회	가오도서관

* 고운소리 이야기꾼: '월평복지관 동화구연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생 대상

** 돋을별: 만55세 이상 대상

(2) 문학 분야

문학 분야는 거의 대부분 독서회이다. 대부분의 독서회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반드시 문학 장르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폭넓게 다루면서 참여자의 토론 중심인 경우도 많다.

표 3-15. 낭송/창작 부문 공공 동호회(8개)

이름	소속	부문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대덕시낭송협회	대덕구 평생학습원	낭송	2012	18		
대전서람이시낭송협회	서구등록동아리	낭송	2017	12		
서람이 시낭송협회	서구평생학습동아리	낭송	2016	12	월4회	서구평생학습원
동행문학	대전시민대학	시/시조	2017	8		
행복한 시 문학	대전시민대학	시/시조	2017	5	주1회	
동화너울	공동	아동문학		7		
나는방송작가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창작	2016	8		동구
시 나리오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창작	2015	10		서구

표 3-16. 독서회 부문 공공 동호회(33개)

이름	소속	대상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그림숲	가오도서관				주1회	가오도서관
그림책 동아리	진잠도서관	일반인			주1회	Book나눔터
글고운	대화동주민학습		2017	5		
글꽃	신탄진 문화의집		2017	7		
글벗문학회	갈마도서관	일반인		24		갈마도서관
글수레 독서회	용운도서관				주1회	용운도서관
나이테	한밭도서관	성인여성(주부)			월1회	강의실
도토리 동아리	송촌도서관	일반성인			주1회	세미나실
리딩홀릭	구암센터		2014	7		
민들레 독서회	가양도서관			15	월1회	가양도서관
바른이해독서회	구암센터		2016	6		
수요독서회	유성도서관	직장인			월1회	문화사랑방
시나브로 독서토론회	구암센터		2015	7		
실버 독서회	신탄진도서관	60세이상			월2회	독서사랑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밭도서관	성인여성(주부)			월1회	강의실
어울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6	6		동구
위인박사들의 위인모임	전민센터			12		
잎싹 독서회	송촌도서관	일반성인			주1회	학습동아리실
주부독서회	공통			13		
주부독서회	구죽도서관	주부			주1회	문화사랑방
주부독서회	노은1동			13		
주부독서회	노은도서관	주부			월2회	문화사랑방
책 먹는 여우	전체	2011독서지도자 과정 수료자	2012	10	월2회	용전동 주민자치센터
책갈피	관평도서관			15	주1회	관평도서관
책나누리	유성도서관	주부			월2회	문화사랑방
책마실	신탄진도서관				주1회	독서사랑방
책마을주부독서회	노은1동			12		
책보리	안산도서관	일반(주부)			주1회	교양교실
책소리	유성구평생학습원			12		
책수다 독서회	송촌도서관	관내 성인주부			주1회	학습동아리방
책이랑	안산도서관	일반			주1회	동아리방
틀스토이 문학회	둔산도서관	일반인			월1회	문화행사실
프리모레비 윤독모임	구암센터		2017	5		

* '주민학습' :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줄임

(3) 시각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는 서양화, 한국화, 서예, 디자인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쿼트 등 생활공예를 소재로 모이는 동호회는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표 3-17. 회화 부문 공공 동호회(16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HYO수채화교실*	효동주민센터	2009	11	주1회	효동 주민센터
가오회**	가오도서관			주1회	가오도서관
구암수채화	구암센터	2016	12		
그리움(서양화)	전민센터	2015	6	주1회	전민센터
그림벗(구소향회)	공통	2015	8		
먹빛 그림	전민센터		9		
문인화 및 한국의 美 연구회	자양동주민센터	2006	11	주1회	자양동주민센터
민화	공통		7		
민화사랑	구암센터	2017	5		
사군자	공통		15	주2회	온천1동주민센터
사군자수묵화	노은2동		15	주1회	주민센터
유화	노은1동		25		주민센터
유화 동아리	온천2동		12		
자연과 사람	구암센터	2016	6		
하늘수채화	구암센터	2014	9		
화요수묵화	용운도서관	2000	10	주1회	용운도서관

* HYO수채화교실: 동구 주부 대상

** 가오회: 2001년 문화강좌 “한국화” 수강생

표 3-18. 서예 부문 공공 동호회(8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산목회	신탄진 문화의 집		10		
서예	노은1동		20		
서예	온천1동		20		
서예교실	용운종합사회복지관	2002	10	주1회	용운종합사회복지관
서예교실 동아리	온천2동		15		
선목회	자양동 주민센터	2002	20	월4회	자양동 주민자치센터
산목회	신탄진 문화의 집	2013	15		
친목회	대전시민대학	2017	8	주1회	

표 3-19. 디자인, 캘리그래피 부문 공공 동호회(8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다붓다붓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6		
대덕향토문화연구회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0	21	주1회	
더 배움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7	7		
도시농업연구회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3	12		신탄진 문화의집
아.미.심	대덕구 평생학습원	2014	16		
웃는캘리그래피	전민센터	2017	5		
조약돌 캘리그래피	구암센터	2017	5		
캘리사랑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5	7		대덕구

표 3-20. 공예 부문 공공 동호회(16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MFL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5		대덕구
공예를 사랑하는 모임	신탄진 문화의 집	2014	10		
규방철우	구암센터	2016	11		
꿈지락 종이공방	송촌도서관			주1회	세미나실
니팅(손뜨개)동아리	구암센터	2016	7		
대바늘손뜨개	전민센터	2017	8		
딱지	동구 평생학습과	2014	11	주1회	동구평생학습원, 중앙시장이벤트홀
무지개 종이접기 동아리	회덕동주민학습	2012	14		
섬유사랑	구암센터	2014	11		
손뜨개인형	전민센터	2012	8		
실과바늘	공동	2017	7		
퀼트	노은2동		10		
퀼트이야기	전민센터	2011	11	주1회	전민센터
한지공예 동아리	공동		17		운천2동 다목적실
한지뜰	구암센터	2015	7		구암센터
함께하는 프랑수자수	전민센터	2016	10		

* '주민학습' : '주민학습문화센터'를 줄임

(4) 기타

상기 분야를 제외하고도 전문적으로 토론에 집중하는 디베이트 모임, 전래놀이 모임, 역사탐방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표 3-21. 기타 공공 동호회(31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포토그라운드		2016	8	월 2회	동구평생학습원
색채움 미술연구동아리	대전시민대학	2017	6		
HIT 역사논술	동구 평생학습과	2012	10	격주	동구평생학습원
과학수다	전민센터		10		
길동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6	14		중구
놀이밥 전래놀이	구암센터	2015	7	격주1회	구암센터
늬늘이	구암센터	2014	6	주1회	유성구평생학습센터
대전역사문화탐방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3	10		서구
도란도란	안산도서관			주1회	동아리방
디베이트 아람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6		유성구
마당전래놀이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2	24	주1회	대전시민대학
마이북(My Book)	가오도서관			주1회	가오도서관
마중물 톡톡	용운도서관			월2회	용운도서관
미술관산책	구암센터	2014	7		
미술로보는세계사	구암센터	2015	9		
비주얼싱킹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6		중구
어사모	구암센터	2014	10		
엄마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	용운도서관			주1회	용운도서관
엄미술사	서구평생학습동아리	2014	16	-	-
여사모	구암센터		10		
여섯줄	구암센터	2014	8		
여행과 인생	구암센터	2017	10		
위캔메이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6		유성구
재나매	구암센터	2014	8		
전통지킴이	진잠동		10		
종이연금술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7		유성구
진주회	전민센터	2015	6		
퀵렌시아	대전평생교육진흥원	2017	10		중구
하머니G	구암센터	2017	7		
하모니	구암센터	2016	5		
한국사로 꿈꾸는 사람들	가양도서관			주1회	가양도서관

3. 대전시 주요 민간 동호회 현황

(1) 공연예술 분야

공연예술 분야에서 민간 동호회는 음악과 국악에 집중되어 있고, 무용이나 연극은 적었다. 무용 분야와 연극 분야에서 전문 예술인이 대전시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료까지 관심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몇몇 아마추어 연극모임들은 대전시의 유명 극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상연하기도 한다.

표 3-22. 무용 부문 민간 동호회(5개)

이름	인원	모임장소
김윤아 나린무용단	25	서대전시민광장 야외공연장
대전생활속예술무용협의회	105	관저문예회관
런치박스	17	미확정
문치빈 무용단	15	대전평생학습관 대극장
유성재즈악단	11	미확정

표 3-23. 연극 부문 민간 동호회(5개)

이름	인원	모임장소
극단 미각	13	대전 커튼콜 소극장
극단 자유세상	13	한남대학교 서의필홀
직장인극단 시향	15	드림아트홀
직장인극단 일탈	19	소극장 고도
플레이	4	미확정

표 3-24. 국악 부문 민간 동호회(25개)

이름	인원	모임장소
공간뜨락	30	대덕구 청소년 수련관
구봉풍물예술단	15	관저문예회관
금타는 사람들	26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
김소진타악연구소	20	두드림문화창작협회 소극장
대전국악단'아울'	100	미확정
대전두레농악단	25	서구문화원
대전한빛풍물단	19	대전청소년위센터
비가비 국악 예술회	31	서구문화원 아트홀
비성문화예술단	20	미확정
사)한국농악보존협회 대전지회	23	미확정
사물놀이터'	23	미확정
소리사랑 예술원	45	중구문화원 공연장
소리사랑연희단	23	미확정
소리샘풍물단	50	서구문화원 대강당
우리가락 얼쑤	16	대덕구 평생학습센터
조예민난타예술단	20	유성온천 두드림 야외공연장
조정숙 전통춤 예술원	10	대전문화재전수회관 공연장
청죽회	30	유성문화원
최숙자경기민요연구원	20	관저문예회관 공연장
춤마루 무용단	14	소극장 고도
한발정악회	28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
한울소리회	29	용운사회종합복지관
해금 잘하기	6	대덕구 공간 뜨락
한국의 소리보존회	25	우리들공원
전통연희단 '모리티'	20	관저문예회관 3층

국악부문 민간 동호회도 공공 동호회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풍물단이 많았으나, 최근 난타, 해금 등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음악 부문 동호회는 합창, 대중음악, 기타, 색소폰, 등 다양한 연주회와 음악 감상 동호회들이 활동 중이며, 실버세대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도 몇 개가 있다.

표 3-25. 음악 부문 민간 동호회(40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funny music community			101		인터플레이
한국오카리나총연합 대전지부			38		미확정
고운소리 색소폰 동호회			30		대덕구 법동 연습실
금강색소폰합주단			9		서구 관저문예회관
기타동아리(성인)	작은나무	2017	4~5	주1회	
기타동아리(청소년)	작은나무	2015	5~6	주1회	
김판중과사람들			22		서구 월평동 은평공원
나래예술단			9		서구청 대강당
뉴매드후드			30		갈마동 '인터플레이'
대전 고은빛여성합창단			10		미확정
대전 팝스 앙상블			31		중구문화원
대전가톨릭만돌리오케스트라			15		서구문화원
대전밴드동호회			32		미확정
대전빅밴드			28		중구문화원 뿌리홀
대전시니어오케스트라			20		중구 문화원
대전실버오케스트라			26		대전시립노인복지회관
대전아코디언동호회			38		미확정
더샷기타앙상블			32		미확정
딤(DIM)색소폰합주단			31		미확정
맑은소리 봉사단			30		서대전시민광장 야외공연장
모두모여노래하자 대전모임			24		가양동 "엠제이아트홀"
사) 21세기연예인협회			25		대덕구 중리동 행복길
성악동호회 깐따야모		2007	15	주1회	목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소리사랑 연구회			19		서대전광장 야외음악당
소리여행		2008	9		탄방동 소리여행 연습실
쌍리음악회	쌍리	2013	10	월1회	
예술의향기			10		유성구 온천죽옥장 야외무대
예술림	공동	2015	8	주2회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음악실
오누이 밴드			30		정림동 수릿뜰공원 야외무대
오카리나(성인)	작은나무	2016	5~10	주1회	
음악데이	구름책방	2017	5	주1회	
이웃사랑참사랑연주단			35		목척교 수변광장
일품예술단			35		남선공원
충남대학교병원어울림합창단			40		충남대학교병원
코알로하 우쿨렐레앙상블			34		서구 문화원 예정
하모니카동호회	쌍리	2017	8		
한빛색소폰동호회			31		미확정
향음윈드오케스트라			25		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극장
한소리음악회	쌍리	1975	15	월1회	
그린빈사운드			8		그린빈버찌라이브하우스

(2) 문학 분야

표 3-26. 낭송 / 문학창작 부문 민간 동호회(18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코리아시낭송작가협회			9		중구문화원 뿌리홀
한국낭송문학협회			35		대전시립미술관 강당
꿈과 두레박			18		서구 월평동
대전가톨릭문화회			45		서구 도솔로 251번길
들꽃문학회			22		
뜨락문학회			17		대전광역시 동구
북포럼			10		
초동문학예술협회			21		사업장
한국행복한재단			21		
대전사랑 문고사랑회			20		모두의 책 협동조합
대전여성시문학회시상문학			14		도서출판 가을
백마문학회			27		대전지방교정청 등
동화를 사랑하는 모임			8		
몰라쟁이 엄마	해뜰	2009	11	주1회	
문예마을			20		한국노총대전회관
카운터펀치	대전시민아카데미	2016	4	월1회	대전시민아카데미
Touche	도시여행자	2017	4	격주1회	
대전 책임어주는 봉사단			25		

민간 동호회 분야 가운데 독서회는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독서회는 공공 동호회에 비해서도,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도 사회참여의식도 높으며, 자발적인 네트워크도 구축하려 하는 등 문화의 생산과 수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으며, 향후 점점 더 영향력과 적극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루는 장르도 순수문학뿐만 아니라, SF등 장르문학, 과학책 모임 등 다양해지고 있다. 독립서점이나 NGO 단체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운동의 거점공간을 마련하려는 의식도 높은 편이다.

표 3-27. 독서회 부문 민간 동호회(71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STS	참터	2013	5	격주1회
가오교원독서동아리			11	
고추장	땅콩	2008	7	월1회
공감독서회			13	
그리스고전읽기			6	
그림책 하브루타	프레드릭	2017	8	주1회
그림책공부모임	땅콩	2014	10	주1회
그림책모임(성인)	작은나무	2017	7~10	주1회
그림책테라피	프레드릭	2017	8	월1회
글 해는 밤			3	
깨북	도안마을신문	2016	4	월1회
나들이			10	
날자	여성단체연합	2015	5	격월1회
낮백권단 동아리			10	
냄비반침			10	
녹색연합 인문학모임	녹색연합	2016	5	월1회
누나야 책읽자	마을카페공유	2014	7	격주1회
대공함 책방			5	
도시인문학모임	도시여행자	2017	10	비정기
도안마을신문			8	
도토리랑 술방울			9	
독서모임	한살림	2016	7	월1회
독서산책	리푸마	2011	8	월1회
동그라미			12	
동치미			6	
따박따박책읽기			6	
리드 포 액션	우분투북스	2017	6	주1회
마이너스 원	마을카페공유	2014	5	월2회
묵독모임	You are what you read	2015	7	월1회
묵독모임	도시여행자	2015	10	주1회
민들레주부독서회			10	
믿음으로			6	
밑줄긋기			6	
밤백권단 동아리			6	
백박스	공동	2002	50	격주1회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북소리			11	
사서사랑 독서회			6	
사월이	땅콩	2017	7	주1회
수요음악회	쌍리	1970	8	월1회
슬로우리딩		2017(2012)	20	격주1회
신선			7	
아리랑 읽기 동아리			5	
아해사랑 화요일엔 책 나누기			14	
에퀴독스	대전시민아카데미	2009	10	월1회
우리는 서구요!			10	
원송이의 힘!			7	
인권 책 읽기 모임	대전충남인권연대	2012	10	월1회
인문학 동아리			7	
인문학 책읽기	마을카페공유	2016	5	주1회
일신독서회	함초롬문학예술연구소	2005	52	격주1회
일요독서모임_삼성나비	카페허밍	2014	10	주1회
읽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6	
자운책사랑놀이터			10	
중고서적	전체	2016	10	주 2회
집현전			10	
짜게			10	
책돌보미	모퉁이	2010	9	월2회
책동이(엄마,유아)	작은나무	2013	8~10	수
책마실	짜깁	2016	7	월1회
책모임	모퉁이	2017	4	월2회
책바라기			8	
책사랑 가수원독서회			7	
책수다			9	
책읽수다			10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26	
책정산	유어왓츄리드	2016	7	월1회
책향기(성인)	작은나무	2015	7~10	화2시
토요독서모임	우분투박스	2017	4	주1회
토요독서모임_허밍웨이	카페허밍	2013	10	주1회
한발독서회			8	

(3) 시각예술 분야

시각예술 분야는 민간 동호회와 공공 동호회의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특별히 사진 동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다.(사진 동호회는 공공 영역에 비해 민간 영역에서 훨씬 강세이다)

표 3-28. 회화 부문 민간 동호회(20개)

이름	인원	모임장소
까연꿈-물빛이야기	20	노은아트리브로 갤러리
다인다색회	11	노은도서관 전시실
대전여류수채화협회	19	고트빈갤러리(TJB방송국1층)
대전이미지드로잉회	19	서구문화원
동행정	18	KBS방송국 갤러리
바끄로회	14	대전갤러리
불우이웃돕기(사랑나눔전시회)	41	중구 문화원 1전시실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세종지회	9	대전 예술가의 집
소석회	26	대전시청 2층 갤러리
연인회	31	중구 문화원 전시1실
예지회	20	대전 예술가의 집
자연전	9	대전갤러리
지음회	6	유성문화원 전시실
크로바 한국화 동아리	11	
표현회	20	서구문화원
하이삭문화연구원	30	은행교 데크
행복한이웃,즐거운그림동아리	30	KBS대전방송총국 1층 로비
한국인물케리커처클럽	3	서구문화원
셋별한국화동아리	54	대전광역시청 제1전시실
한국전통민화협회	31	갤러리아 타임월드갤러리

표 3-29. 공예 부문 민간 동호회(6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모임장소
공실	마을카페공유	2014	7	주1회	
꾸러미재봉틀	짜공	2017	5	주1회	
바늘가는데	땅공	2014	8	주1회	
오원회			53		KBS대전총국 1층 전시실
퀼트사랑	마루	2011	10	주1회	
토우회			28		KBS대전방송총국 1층 전시관

표 3-30. 사진 부문 민간 동호회(14개)

이름	결성년	인원	모임장소
B,S,C	2016	7	은행동룸카페
For Dream		13	대전광역시청 1층 제1전시실
다빛		35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전시장,7관,8관
대전교원사진연구회		16	대전갤러리
대전사진씨클총연합회		14	대전광역시청 제2전시실(2층)
대전인물사진동호회	2007		
대한사진예술가협회대전지회		20	대전예술가의집
동그라미	2013	10	
빛담	2010		
은여울 사진예술가회		48	서구문화원 1층 전시관
카오스		200	미확정
포토부클럽		13	미확정
한밭사우회		16	대전시청 1층 전시실
한빛사우회		20	서구문화원 1층 전시실

표 3-31. 서예 부문 민간 동호회(14개)

이름	인원	모임장소
관포연서회	60	대전갤러리
덕인회	19	대덕노인복지관 전시관
봉산묵연회	25	서구문화원
석정서회	50	중구문화원1층(제1,2전시실)
석천연서회	30	중구 문화원
양성서도회	15	대전 중구문화원 제1전시실
옥당한마루문인화연구회	61	대전시청
장서회	10	대전 예술가의 집
장애인 서화회	30	대청문화전시관 1층
평사서회	14	대전예술가의집(4전시실)
한국추사연묵회	55	대전예술가의집 1~8관 전시실
한밭연서회	175	대전시청 2층 전시실
해농연서회	8	대전평생학습관
해촌묵연회	17	대전갤러리

(4) 기타

민간 동호회는 공공 동호회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의 모임들이 많다. 와인이나 영화, 드론, 오디오 등 개인의 마니아적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카페나 서점, 생활협동조합 등을 축으로 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견실한 경우가 많다.

표 3-32. 기타 민간 동호회(20개)

이름	소속	결성년	인원	주기
Pause	구름책방	2017	5	주1회
save과학동아리	달팽이	2017	8	월1회
대전영화책공작소				격주1회
드론파일럿클럽		2017	20	주1회
들꽃마당(성인)	작은나무	2016	7~8	화4시
명랑소녀	마을카페공유	2015	6	월1회
보물찾기	해뜰	2007	9	월1회
북안맘스	짜꿍	2010	9	월2회
뿌리	해뜰	2007	25	주1회
실용오디오 대충당(대전 충남)				
엄마미술(엄마, 유아)	작은나무	2016	20	주1회
여든 역사동아리	모통이	2015	8	월1회
영화데이	구름책방	2017	12	월1회
영화소모임	문과방	2016	10	월1회
절전소	모통이	2012	40여명	월1회
중학생동아리	짜꿍	2016	9	주1회
초등역사탐방	짜꿍	2011	15	월1회
초등책놀이	짜꿍	2008	5	주1회
클래식와인		2003		
한국사학습	한살림	2017	6	월1회

4장 대전시 생활문화동호회의 요구수준

1. 모임 결성 계기와 목적
2. 모임의 편익과 어려움
3. 모임의 비전과 미래상

1. 모임 결성 계기와 목적

1) 모임의 결성 계기 및 동기

- 동호회의 근원은 우선 특별한 소재에 대한 취미라 할 수 있다. 소재 자체에 천착하면서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주변에 보이지 않을 때 직접 동호회를 결성하거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모임 결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저희 단장님이 만드셨는데요, 팬플룻을 어렸을 때부터 독학으로 하셨어요. 이 악기를 너무 좋아하셨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전에서 팬플룻을 배우거나 가르쳐 주는 데,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팬플룻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파를 하고 싶어서 동호회를 만들게 된 거죠. (팬트라움)

처음에는 사실 권유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네가 책을 좋아하니까 대전에서 이런 독서모임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저도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산책)

- 최근에는 SNS가 모임 결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처음 창설 멤버가 아니라 맨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독서모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찾다가 SNS 상에서 홍보글을 보게 되었고 그 뒤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끌어 나갔던 전 모임장님께 연락을 해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현재까지 계속 모임을 이어 나가고 있어요. (묵독모임)

-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력이 있으면, 대전지역에 정착해서도 비슷한 모임을 결성하는 경우도 흔하다.

부산에서 독서카페를 했었다. 독서모임한 지 5년이 되었다. 대전은 3개월 전에 내려왔다. 대전에서 만든 것은 3개월 전이다. (영화책공작소)

2) 모임의 활동 목적

- 대부분의 동호회가 처음 결성될 때에는 단순히 취미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박한 의도였다.

목적은 취미로 시작을 한 거 같아요. 취미활동으로 시작을 하다가. 처음에는 혼자 했다가 온라인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같이 하시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아서 한 두명씩 모이다 보니까 그게 10명이 되고 늘어난거죠. 주구장창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는 이런 저런 얘기도 하면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스트레스 받은 것 있으면 서로 풀고 모임하고. 드론은 날리기도 하고요, 조립도 하고요. 정보 공유도 하고. (드론동호회)

책을 혼자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책을 계속 읽다보면 자기가 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자기가 새로 알았던 사실이나 지식 같은 것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읽는 지도 궁금했었고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어서 같이 한 번 읽어 보고 싶었어요. (도시인문학)

처음에 목적이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책과 관련한 인문학 강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같은 책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좀 시각을 넓히고 그런 의미에서 탄생하게 됐고요. (산책)

우선 팬플룻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팬플룻을 같이 배우고 팬플룻 음악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기도 하면서 음악 활동을 통해서 친목도 다지고 더 나아가서는 대외적으로 공연활동도 하면서 팬플룻 음악을 널리 알리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팬트라움)

- 하지만 모임의 결성 당시에 이미 사회적으로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결성 당시 희미한 목적의식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강화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전공책이나 자기계발서 이외의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독서는 치유의 과정이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삶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 들었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다. 인문학은 결국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토론 문화가 잘 발달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성향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영화책공작소)

저희 모임의 목적은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책 읽는 문화의 활성화와 독서를 증진. 요새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모임을 통해서라도 책을 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와서 책을 읽고 읽고 난 뒤에는 책을 읽다가 든 생각 이런 것, 사고의 확장 혹은 지식 습득 이런 것도 말하고 있고요..... 저희 모임 취지도 처음에는 느슨한 모임이라고 해서 거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최소한의 닉네임만 밝히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전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문화활동도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서 같이 가거나 해요.(묵독모임)

다양한 책 모임이 생겨날 때 쯤에 저도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주제로 도시인문학이라고 정하고 관련된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했어요.(도시인문학)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의미부여.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클래식을 대중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잖아요. 실상 음악 싫어하는 사

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뭐 음악 전혀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분들 데려다 놓고 음악을 틀면 한 6개월 정도 나오다가 안 나와요. 길게 나와봤자 1년. 그 이후로 나오는 건 음악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들 관계로 나오는 거지, 꼭 음악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피드백 없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쌍리음악회)

- 믿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모임 내 하위 모임을 만드는 시도도 한다.

직장인들은 바빠서 책 읽는 것이 습관화 되지 않는다.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활동을 하고 싶다. '대전영화책공작소'라는 이름으로 3개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 동호회이다. 8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슬로우리딩> <북살롱> <시네마톡톡>을 운영한다. 두 개 이상의 모임에 나오는 회원도, 띄엄띄엄 나오는 회원도 있다. (영화책공작소)

- 이러한 사회참여의식은 개인적 소망을 넘어 모임 자체가 지속되는 데에도 큰 요인이 된다.

저희 모임이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게 저희가 악기 연주하는 동호회잖아요. 근데 악기연주 자체를 우리끼리만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봉사라든지 아니면 천문대에 정기적으로 별음악회를 연주한다든지, 외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바깥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악기, 팬플룻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팬트라움)

2. 모임의 편익과 어려움

1) 모임 활동을 통해 얻게 된 편익

- 혼자 취미활동을 하는 것보다 함께 취미를 공유할 때, 서로의 격려 속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하고 싶은 일, 팬플룻이라는 악기로 취미활동을 같이 하다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팬플룻 연주를 하면서 풀 수도 있고..... 꾸준히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대단하다고 하고 실력도 처음보다 나아지고 밖에 나가서 연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력도 많이 늘었다고 옆에서 칭찬해주면 더 우쭐해서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팬트라움)

- 동호회는 대부분 하나의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다. 내가 처하지 않은 상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에서 흥미를 느끼고, 비슷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삶의 큰 활력소로 여긴다.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만큼 인간관계상 적당한 거리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데 오히려 이것이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

컴퓨터 게임을 해도 혼자 하는 것 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경쟁도 하고..... 좋아하는 걸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드론동호회)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대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과 얘기를 한다면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었고, 1회성 모임이라서 좋은 이유도 있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적당한 관계 안에서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내가 하

고 싶은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인문학)

아무래도 공통된 관심사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각들도 많이 들어볼 수 있고 대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 외적인 다른 공간에서 굳이 시간을 내서 같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 같은 걸 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묵독모임)

서로 다른 직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관점에서 책을 본다. 시야가 넓어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전체적으로 현재 대전 분들이 30%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70%정도인데, 책을 통해 유대감이 생기면서 친밀해졌다. 직장인들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친구를 만드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모임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취향이나 성향도 잘 맞다보니 친해지게 되었다. 책으로 만난 사람들이다보니 오히려 친구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나는 이것을 책이 가지는 치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나누고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다. (영화책공작소)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책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사는 이야기를 듣고 삶의 지혜를 조금씩 마음에 담아갈 수 있어서 그게 참 좋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게 회의 빠고는 없잖아요. 근데 독서모임을 오게 되면 누구나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소한 힘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시를 주제로 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하면 마음에 와 닿는 시가 있고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나 겪었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험담이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산책)

○ 마니아(mania)로서의 식견을 동호회원에게 나누는 데서 큰 보람을 느끼며,

이러한 활동 자체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자부심을 갖는다.

음악 정리만 해놓으면 이제 할 수 있어요.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옆에 있고. 현대음악만 30년 들은 사람이 있어요, 도청에.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평생 3-40년 그걸 해왔잖아. 50넘고 60 가까이 되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분한테 도움을 받고, 같이 하면서 그런 작업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훨씬 보람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악만 좋아해서 모여서 음악만 들을 수 있다, 하모니카 볼 수 있다, 그거 사실 별 의미가 없어.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그게 다잖아. 그러면서 서로 간에 유대감이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쌍리 음악회)

2) 모임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

-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장점은 모임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해결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사람들의 생각을 합치는 것이 어렵다.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의견이 갈리면 앙금을 품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사람은 다양한데, 정말 배려와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노쇼. 온다고 했다가 당일취소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 (영화책공작소)

블특정 다수가 참여 하기때문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모임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어느정도는 폐쇄성을 가져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제한을 해도 막기는 어렵고, 누군가를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인데 모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말 이걸 원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 친구를 찾기 위해서 모임을 온다면, 그럼 그 날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지거든요. (도시인문학)

단순 이성목적이나 술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책이 아닌 술이나 이성교제 이런 걸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또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생각도 다 다양할 것이니까 생각한 것 강요 하거나 정치나 종교 강요 이런 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묵독모임)

- 일정한 공간에 기반을 둔 동호회(동네 서점, 카페 등)을 제외하면 동호회 들은 공통적으로 모임장소의 안정적 확보를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시민대학이 막 생기면서 여러 교실 중에 동호회들이 쓸 수 있는 교실을 몇 개 지정해서 요일별로 쓸 수 있게 해놓고 동호회를 모집을 한 거죠. 그 때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동호회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민 대학에서 동호회 교실을 계속 쓰려면 매년 신청서를 냈어야 돼요. 적합한지 심사를 해서 몇 군데만 쓸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 정도부터 시민대학 방을 쓸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거기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거기에 수강하는 회원이 몇 명 이상 돼야 하고 그리고 동호회 회원 1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이 생겼어요. 우리는 회원이 20명이 넘는데, 우리 같은 동회회는 혜택을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모임을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건 장소 같은 게 마땅하지 않아서 힘들었었고.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 같은 건 힘들기도 했고 저희는 주로 직장인들이 많아서 저녁에 모여야 되니까 음악을 연주하다보니까 소음 같은 것도 있어서 장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죠. (팬트라움)

드론이라는 건 대전은 허가없이 못 날려요. 대전 전 구역이 비행 금지 구역이어서 6개월에 한 번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그 공간이 나무 같은 것들도 많다보니까. 원래 뽕 풀리고 이래야 좋은데, 나무도 많고. 지금 거기가 축구장이거든요. 축구하는 사람들 오면 우리가 피해줘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죠. 우리가 전세내고 쓰는 게 아니니까. (드론동호회)

3. 모임의 비전과 미래상

1) 모임의 성장과 활동에 대한 기대

- 모임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성취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象)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이 독서모임들은 길게 가고 싶다. 독서지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꾸준히 이쪽으로 공부하고 있다..... 다른 곳에 '책상담'이라고 독서를 처음 시작한, 책을 읽고 싶지만 어떤 책을 읽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런 서비스와 독서모임을 함께하는 북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책-영화-사람을 연결해주는 커다란 공동체가 되었으면 한다. (영화책공작소)

- 모임의 가치를 현재 구현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모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모임 구성의 변화를 바라기도 한다.

저는 사실 연령대를 좁히고 싶었어요, 오히려. 저희 세대에서 조금 더. 왜냐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좋은데,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기에는 고민하는 것들이 더 비슷해져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도시인문학에서 대중교통, 이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자차를 가지고 있어서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 아닌거죠. 타인의 불편함으로만. 근데 이런 정책들은 삶의 만족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도시인문학에서 특히나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20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막상 모임을 열어보니 되게 다양한 연령대에서 왔었던 것 같아요. (도시인문학)

제일 어린 사람이 35살인가, 남자. 나이가 다 많아, 40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이는 게 대부분 나이가 다 많거든. 거기는 미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 그 나이 또래가 좀 더 들어와. 근데 그것도

4-50대야. 회원이 60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 대도 안 들어오고 그 인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폭삭 늘어버려요. 그래서 모임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수혈이 되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돼요. 어떤 세대가 뭉쳐 있잖아, 그럼 그 모임은 그렇게 고사되어 버려요. (쌍리음악회)

저희가 처음에는 동호회 팬트라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8월 말에 연습실하고 사무실을 오픈하게 된 이유가 동호회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프로다운 면으로 외부에 많이 알리고 팬플룻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도 같이 양성을 한 번 해보고자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팬플룻을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강습이나 팬플룻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지도자 양성을)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단장님이 팬플룻이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팬트라움)

-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문화사업에 비해 민간에서 동호회를 통해 펼치는 활동이 지니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공공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면 잠깐 동안은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화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 해요. 지속성이 있으려면 개인이 좋아서 해야 그것이 더 내실이 있어지고. 왜냐면 진짜 필요한 것만 하니까. 좋아하는 것과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할 때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세부적인 것까지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보면 비용 대비 효과가 없으면 없어지죠. 어떤 모임이든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잘 될 때도 잘 되는 거고 안 될 때도 이러다가 다시 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던가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2) 정책 반영이나 제도권 변화를 위한 바람

- 현재 문화예술의 실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미 한계까지 간 거예요..... 요새 보면 젊은 작가들도 자기 세계를 잘 못만들어요. 만드는 것 같으면서 자기 세계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의 세계가 메말라 있는 거고 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자기 잠재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한, 틀에 박힌 교육을 계속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교육 시키지 않는가. 그러니까 목대, 한남대, 배재대 학교 출신들은 그림만 봐도 어디 출신인지 표시가 나요.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 학교 틀이 있는 건데. 그 중 몇 명은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틀에서 못 벗어나고 평생 가는 사람들이 흔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자기 세계는 못 만드는거야.(쌍리음악회)

- 장기적으로 제도나 문화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각자 도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점들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긴 했는데, 그건 단계적인 거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인문학)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 개성만이 인정을 받지, 독창성이 없으면 예술로 인정받기 사실 힘들어요. 그런 예술을 함에 있어서 음악을 통해서 감성을 자극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젊은 작가들을 모아서 현대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감성의 다른 부분을 자극 받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내가 굉장히 만족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목표가 생겼어요. 5년 정도 하다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라고 생긴 거야. (쌍리음악회)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정책 반영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심당을 건너갈 때 횡단보도로 가는 사람보다 그 옆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횡단보도를 2배 사이즈로 키울 순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엄청 사소한 건데,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모임에 행정을 집행하시는 한 분이 섭외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다음에 제안을 하면 좋겠죠. (도시인문학)

- 일부 동호회에서는 문화생산의 소비와 매개, 생산의 관계를 성찰하는 모습도 보인다.

앞으로도 이 콘텐츠는 저는 더 주기적으로 지속하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책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을 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책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돛자리독서회는 특정 카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떤 비영리 법인도 아니고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허물어진 사례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인데, 기획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기획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례로 정말 특수하다고 생각해요. (도시인문학)

3) 모임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

- 동호회 활동비 지원을 희망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 해 준다면 책을 구매하거나 할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부산 북카페의 사례가 하나 있는데, 1대1로 책 상담을해서 한 달에 1권 씩, 5명에게 3개월간 총 3권의 책을 처방해주는 이벤트가 있다. 그것을 시청과 연계해서 진행했는데, 책 상담비, 책 운송료등을 시청이 부담했다고 한다. 부산과 서울에는 책 읽는 지하철이 있다. 대전도 그런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좋지 않을까. (영화책공작소)

- 모임의 가치를 알리고 모임을 확장하기 위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모임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홍보 채널이. 이걸 이 모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획하는 프로그램들도 동일한데, 좋은 컨텐츠들이 참 많은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고요. (도시인문학)

모임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소모임도 소모임만의 홍보 방식이 있긴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대전은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근데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하는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던데, 플랫폼 다수들에게 대전도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모임이 있고, 이런 다양한 문화 컨텐츠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묵독모임)

- 아래 면담 내용과 같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을 세밀히 지원하는 정책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최근에 도시마케팅공사도,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도 학습단계나 학습단계를 넘어 선 조직화 단계라던가 정책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의 아래 단계도 필요한 것 같고. 예를 들어, 훨씬 더 작은 단위의 실험들을 할 수 있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막상 지원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대표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기록들, 지속했던 부분들이 쉽게 인정이 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사회 공동체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독서모임이다 보니까 학습단계에서 조금 더 진화하고 싶은 욕심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연구자들을 만나고 싶다면, 책의 주인공, 저자들을 만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지원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를 역으로 고민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정책적으로 헌터들도 많고 그래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도시인문학)

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2. 정책 지원 방향

1. 조사결과 요약

본 연구 과정에서는 대전시, 대전문화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별 평생학습원, 공공도서관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500여 개의 공공 동호회를 파악하였고, 인터넷(미디어가온의 언론보도자료 등)과 NGO, 동호회 관련 오피니언 리더 등을 통해 500여 개의 민간 동호회를 파악하였다. 이 중 생활문화향유동호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동호회로 재검토 하니, 공공과 민간을 합쳐 500개에 가까운 동호회의 현황을 정리 할 수 있었다. 본 조사 결과 대전 생활문화향유동호회 현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1) 공공 동호회와 민간 동호회의 특성 차이

본 조사에서 파악된 공공동호회와 민간 동호회의 수는 비슷한 규모이지만, 활동의 다양성과 자발성, 기존의 문화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같은 독서회라 하더라도, 민간 동호회는 훨씬 더 역동적이었으며, 제도를 바꾸고 조직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드러났다.

(2) 공간 확보가 관건

다수의 공공 동호회는 이미 문화원, 평생학습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공간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두드러지게 펴나가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간 동호회 대부분은 모임 공간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요한 것은 몇몇 민간 동호회에서 모임 공간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화운동의 거점 장소로 모임공간의 중요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3) 동호회 활동의 공통된 취향을 주변에 전파하고 공유하기를 희망

생활문화향유동호회는 개인들의 취미를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취향을 지닌 이들끼리 모여 공감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이렇게 비슷한 취미를 공통분모로 하여 활동을 하다보면 자신들의 취미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동호회에서 대전시 주최로 ‘생활문화동호회 축제’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4) 모임원 간의 친목도모에서 보다 확장된 네트워크를 도모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 자신의 취미를 공유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동호회의 기본적인 매력 요인이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모임의 확장과 사회 참여를 위해 다른 모임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도모하면서 자극을 받고 싶어 한다.

2. 정책 지원 방향

1) 정책적 시사점

(1) 공공 동호회는 공공 도서관의 활성화가 일차적 관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 동호회의 상당수는 공공도서관과 관련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동호회 활동의 거점공간으로서 동호회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면 공공 동호회의 활동에 큰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도서관 내의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들은 자원봉사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편익을 위해서도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2)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더 개방해야 함을 시사

공공 동호회와 민간 동호회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임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의 건물을 과감하게 동호회에게 개방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점차 확대될 예정인 생활문화센터에서도 동호회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기획되고, 동호회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기존의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모임공간이 필요한 생활문화동호회와 적극 제휴하여 공간관리의 주체로 활용하여 휴일이나 야간까지 일정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성구에서는 동 주민센터 공간개방 공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노은1동을 지역 커뮤니티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생활문화동호회와 연계한다면 공간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호회 간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과 홍보 협력

동호회들이 갈망하는 확장된 네트워크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문화수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호회 들이 한 모이는 ‘대전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등을 기획 추진하고, 대전시 SNS 등을 통해 홍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민간 동호회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최근 생활협동조합이나 NGO단체 등에서는 문화동아리 활동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외부 동호회에도 개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역량 있는 민간 동호회와 적극적으로 만나고 지원하여 대전시 문화정책의 주요한 주체로, 문화생산과 문화수용의 매개자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정책 방향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선도적 정책지원을 추진 중인 부천문화재단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정책지원방향을 표방하고 있다. 자발성과 민주성, 개방성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부천생활문화예술협의회라는 거버넌스 조직을 통해 주요 주체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조정한다. 부천생활문화예술동아리축제를 기획하여, 내적 구심력을 높이는가 하면, 인천시의 ‘인천 문화바람’이나 성남시의 ‘성남 사랑방 문화클럽’등 유사한 생활문화 지원 조직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적 원심력을 신장한다. 아울러 생활문화예술동아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유형에 맞춰 공간 리모델링이나 확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기조는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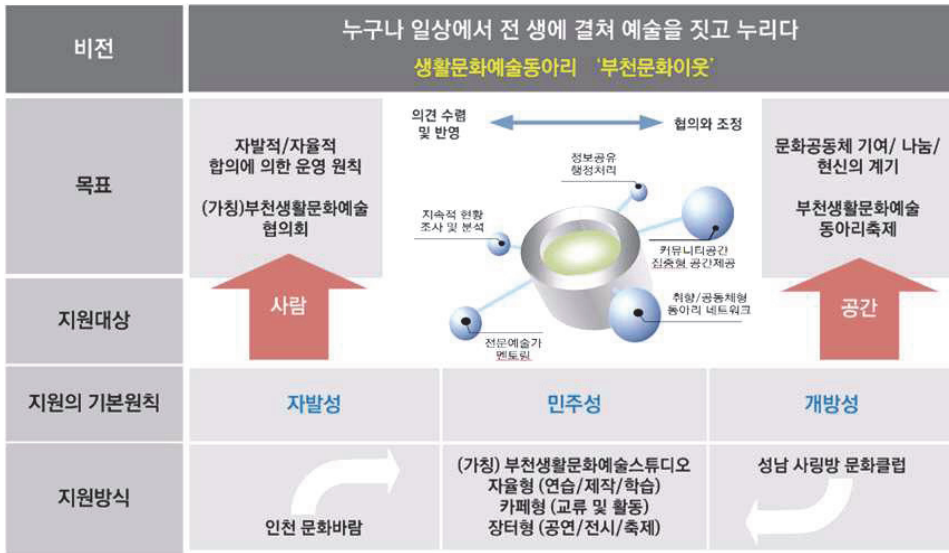


그림 5-1. 부천시 생활문화동아리 지원정책 체계(출처: 손경년, 2014)

제도적인 면에서는 우선 대전시에서도 생활문화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도는 물론 부천시, 나주시, 정읍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두고, 생활문화시설과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제정과 함께 자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역량 있는 생활문화향유동호회들과 과감한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공립 작은도서관은 대부분 개방시간이 낮 업무시간으로 한정되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면이 있는데, 독서동호회등과 연계하여 공간 개폐와 관리를 분담한다면 훨씬 더 문화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주 외(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정책 보고서.
- 강윤주·전수환(2015),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연구, 경기문화재단.
- 강윤주·지혜원(2016), 생활예술 오케스트라를 통해 보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 <문화와 사회> 2016 겨울 호 통권 22권.
- 고성영 외(2013), 성남시 생활예술공동체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장기(2014~2020) 발전계획 연구.
- 김기봉(2016),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분석,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제3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유진(2017), 생활문화예술공동체 활동과 삶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노재천(2009), 문화공동체 예술정책과 사랑방 문화클럽, 세계문화클럽포럼 자료집.
- 민인철 외(2015), 광주광역시 시민생활문화예술 활성화방안연구. 광주발전연구원.
- 손경년(2014), 생활문화예술 공간조성과 운영방안,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심보선 외(2010),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문화와사회> 2010 봄/여름 호 통권 8권.
- 심보선·강윤주(2010), 참여형 문화예술활동의 유형 및 사회적 기능분석: 성남시 문화클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 안영노 외(2009), 생활문화공동체현황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윤소영 외(2010), 동호회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성은(2017), 대전지역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민희(2014), 생활문화예술동호인 활동 만족도 분석,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 정광렬 외(2016),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정중은 외(2013), 성남문화재단 생활예술정책 성과평가 연구.
- 정해홍(2017), 전라북도의 생활문화예술 방향과 지원체계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 조광호(2015),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조현성 외(2014), 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과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한상현(2017), 대전시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 보고서.

DSI

부 록

1. 생활문화 관련 법령 및 타 지역 조례
2. 대전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 생활문화 관련 법령 및 타 지역 조례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354호, 2014.1.28.,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0.31.] [대구광역시조례 제4893호, 2016.10.3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대구광역시 및 구·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육성·지원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에 연계활동 촉진과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3. 생활예술제의 개최
4.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구광역시 및 구·군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시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생활문화시설은 대관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구·군, 개인,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93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전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1) 동구

가양1동	기체조, 서예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노래교실, 체조교실, 헬스, 탁구교실, 생활체조, 풍물교실, 난타교실
가양2동	서예교실, 인터넷카페, 노래교실, 탁구교실, 에어로빅교실, 풍물교실, 생활체조, 댄스스포츠, 요가, 밸리댄스, 빛고을합창단
대동	생활체조, 건강체조교실, 서예교실, 밸리댄스, 요가교실
대청동	풍물교실, 민요교실
산내동	사군자, 댄스스포츠, 풍물, 에어로빅, 노래교실, 기체조교실
삼성동	헬스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생활체조, 문인화교실, 어린이 방송댄스, 방송댄스
성남동	주민헬스장, 노래교실, 풍물교실, 요가교실, 기체조교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교실, 미술교실
신인동	풍물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 헬스, 난타, 워킹댄스
용운동	헬스장 운영, 탁구장 운영, 새울아카데미주민자치대학,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교실, 노래교실, 요가교실
용전동	탁구
자양동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생활체조, 줌바댄스, 헬스, 탁구, 밸리댄스
중앙동	노래교실, 풍물놀이, 요가교실, 서예교실, 헬스교실, 건강리듬댄스
판암1동	요가교실, 건강기체조,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난타교실, 헬스
판암2동	헬스교실, 라인댄스교실, 요가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기체조교실
홍도동	댄스스포츠교실, 어린이방학특강, 컴퓨터교실
효동	다이어트댄스교실, 노래교실, 사군자교실, 요가교실, 풍물교실, 효동합창단, 밸리댄스교실, 퍼포먼스난타교실

2) 중구

대사동	서예교실, 노래교실, 풍물교실, 열린도서관, 주민쉼터, 정보나눔터
대흥동	마을문고, 서예교실
목동	난타교실, 노래교실, 목련합창단, 풍물교실, 요가, 서예교실,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교실
문창동	민요교실, 노래교실, 농악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 차밍댄스, 서예교실, 마을문고
문화1동	한국화, 난타, 중국어, POP(예쁜글씨), 다이어트 댄스, 댄스스포츠, 유화, 요가, 풍물
문화2동	파워로빅, 고전무용, 노래교실, 맑은샘도서관, 에어로빅, 단전호흡, 풍물교실
부사동	들꽃 합창단, 어르신한글교실, 한국 전통무용, 댄스스포츠, 농악, 요가교실
산성동	모듬북, 문인화, 발리댄스, 요가, 에어로빅, 예쁜손글씨, 노인건강체조,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농악교실, 서예교실
석교동	난타교실, 요가교실, 민요교실, 농악교실, 노래교실, 에어로빅
오류동	라인댄스, 탁구교실, 노래교실, 농악교실, 요가교실, 마을문고, 문화정보실
용두동	농악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에어로빅
유천1동	라인댄스, 인터넷사이버룸, 마을문고, 일본어교실, 노래교실, 요가, 풍물교실
유천2동	농악교실, 버드내 합창단, 댄스스포츠, 주민상담실, 마을문고, 요가 교실,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은행선화동	웰빙댄스교실, 요가교실, 난타·농악교실, 상담실운영, 성인탁구교실, 발리댄스교실, 노래교실, 마을문고, 서예교실
중촌동	에어로빅, 실버 건강체조, 실버요가, 노래교실, 웰빙댄스, 요가,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마을문고, 탁구교실
태평1동	웰빙댄스,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노래교실
태평2동	벌말합창단, 리듬짜교실, 생활영어, 쿼트교실, 차밍댄스/요가, POP예쁜글씨, 단전호흡교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농악교실

3) 서구

가수원동	요가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헬스교실, 기체조, 풍물교실, 상인회요가, 건강댄스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가장동	건강교실, 댄스스포츠교실, 서예교실, 에어로빅교실, 요가교실, 마을문고(작은도서관), 탁구교실, 풍물교실
갈마1동	새마을문고, 문인화교실, 풍물교실, 헬스장, 요가교실, 서예와 예쁜글씨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생활체조, 라인댄스, 웰빙댄스
갈마2동	새마을문고, 풍물교실, 댄스스포츠, 생활체조, 서예교실, 요가교실, 노래교실, 휘타구교실
과정동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요가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 새마을문고, 노래교실, 헬스
내동	새마을문고, 체력단련장, 댄스스포츠, 웰빙댄스, 서예교실, 풍물(난타)교실, 요가교실, 생활체조, 노래교실
도마1동	풍물교실, 요가교실, 서예교실, 새마을문고, 스포츠댄스, 건강교실, 희망합창단
도마2동	풍물교실, 민요교실, 서예교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노래교실, 생활체조, 건강사랑방
둔산1동	풍물교실, 요가교실, 유산소성스트레칭, 난타교실, 탁구교실, 노래교실, 예쁜글POP교실, 중국어교실, 소리샘합창단, 새마을문고
둔산2동	풍물교실, 꽃꽂이교실,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서예교실
둔산3동	요가, 생활체조,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중국어교실, 사진, 하모니카, 문고, 풍물교실
만년동	생활체조, 새마을문고, 노래교실, 헬스교실,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풍물(난타)교실
변동	건강(헬스)교실, 새마을문고, 서예교실, 노래교실, 오카리나교실, 풍물교실
복수동	댄스스포츠, 발리댄스, 에어로빅, 요가, 풍물, 새마을문고, 주민헬스, 드라이플라워데코
용문동	인터넷정보방, 서예교실, 풍물교실, 새마을문고, 문인화교실, 생활체조교실, 수지침교실
월평1동	마을문고, 헬스, 풍물교실, 에어로빅, 생활체육지도 프로그램 운영(헬스프로그램), 실버체조무용, 서예교실, 요가
월평2동	새마을 문고, 중국어교실, 일본어교실, 통기타교실, 댄스스포츠, 체력단련실, 요가, 리듬 쿼, 생활체조(에어로빅), 엄마표영어교실, 탁구교실
월평3동	댄스스포츠, 기타교실, 풍물교실, 난타교실, 생활체조, 노래교실, 라인댄스, 헬스교실,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수채화교실, 생활과학교실
정림동	풍물교실, 캘리그래피, 생활체조, 탁구교실, 헬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서예교실, 리본공예
탄방동	한학교실, 댄스스포츠, 요가, 문고, 인터넷방, 풍물중급, 헬스장, 노래교실, 생활미술교실
관저1동	관저마루 작은도서관(새마을문고), 노래교실, 고전무용, 풍물교실, 요가, 스포츠댄스, 가야금병창, POP예쁜글씨, 생활체조
관저2동	요가, 댄스스포츠, 탁구, 노래교실, LED크리스탈플라워, 관저생활체조클럽
기성동	헬스, 요가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마을문고, 인터넷방

4) 유성구

관평동	방송&나인댄스, 탁구, 뽀리댄스, 요가, 풍물, 노래교실, 오카리나, 꼬꼬마우쿨렐레, 서예, 생활과학, 생활영어
구죽동	생활요리, 홈베이커리, 다이어트댄스, 노래교실, 통기타교실, 풍물, 캘리그라피, 오카리나, 토탈공예, 요가
노은1동	기체조,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건강요가, 노래교실, 풍물, 탁구교실, 영어회화, 오카리나, 한식조리사자격증반, 가정요리반, 양식자격증반
노은2동	탁구교실, 다도강좌, 중국어, 생활영어, 풍물, 서예, 도자기, 요가, 전통무용, 노래교실, 기체조, 에어로빅, 라인댄스, 사군자, 수목화, 쉐프및서양자수, 다이어트체조, 색소폰
노은3동	중국어, 생활영어, 생활조리, 브런치클래스, 떡케익플라워&디저트, 통기타, 캘리그라피, 요가,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도예
신성동	생활영어, 클래식 기타, 사군자·서예, 기공체조, 탁구교실, 뽀리댄스, 풍물, 댄스스포츠, 기공체조(기체조, 태극권)
온천1동	노래교실, 요가, 라인댄스, 댄스스포츠, 민요반, 풍물, 전통무용, 난타, 영어회화, 탁구교실, 천연비누화장품, 서예, 사군자, 풍선아트
온천2동	영어, 일어, 탁구교실, 한식 조리사 자격증반, 일중식&웰빙 조리사 자격증반, 가정요리&샌드위치, 떡·한과, 밀반찬, 생활요리, 제과·제빵, 유화, 한지공예, 서예교실, 플룻, 풍물, 민요&가락장구, 색소폰연주, 라인댄스, 토요일(키크는 줄넘기)
원신흥동	노래교실, 탁구, 요가, 서예, 스포츠 댄스, 뽀리댄스, 에어로빅, 생활영어
전민동	서예, 사군자, 중국어, 영어, 노래교실, 요가, 레크레이션댄스, 풍물, 키크는놀이터(키커체조)
진잠동	일본어, 영어, 요가, 수채화 및 유화, 노래교실, 전통무용, 풍물, 기체조

5) 대덕구

대화동	요가교실, 라인댄스, 한국무용, 발리댄스, 캘리그래피 2급, 문고
덕암동	볼링교실, 부동산경공매, 가족웰빙 홈베이킹&디저트, 우리동네 탁구교실, 품격있는 필수요리, 전통&퓨전난타,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
목상동	통기타반, 기체조교실, 실버레크댄스, 캘리그래피자격증반, 우쿨렐레, 북아트지도사2급, 몸펴기스트레칭, 핸드메이드 도자기
법1동	헬스반, 문고, 풍물교실, 난타, 힐링요가, 근력쟁! 필라테스, 다이어트로빅, 기타의 선율과 함께, 밧줄놀이, 나만의 캘리그래피, 뮤직가튼
법2동	다이어트댄스, 힐링요가, 우쿨렐레, 건강리듬댄스, 디지털사진교실, 서양자수생활소품, 양금플라워, 부동산경공매
비래동	난타교실, 에어로빅, 산과들약초이야기, 몸짱요가, 노래교실, 풍물교실, 리듬댄스, 서예교실
석봉동	오카리나, 힐링요가, 댄스스포츠, 경기민요, 네일아트
송촌동	쑤마라틴댄스, 힐링요가, 낭만기타교실, 댄스스포츠, 힐링필라테스, 부동산 경·공매, 누구나 쉽게 따라하기 수리역학, 초등 리더십스피치교실, 말문이 트이는 해외여행, 어린이 방송댄스, 2015 찾아가는 시민법률학교, 캘리그래피
신탄진동	댄스스포츠, 뮤직난타교실, 서예교실, 한자교실, 힐링뮤직기체조, 영어교실, 기타교실, 난타교실, 몸펴기체조, 한국전통춤, 합창단, 오카리나, 요가교실, 풍물교실, 문인화산수화, 금강화노래교실, 최우선노래교실, 민요교실
오정동	탁구교실, 요가교실, 댄스스포츠, 레크리에이션댄스, 레크리에이션, 기타교실
중리동	캐리커처, 우쿨렐레, 바른체형요가, 힐링기타교실, 캘리그래피, 뮤직난타
회덕동	프랑스자수, 쑤마라틴댄스, 경기민요, 난타, 풍물교실, 기타 중급과정